

리아호나



상호부조회

창립

175주년

14쪽



1867년경 엘리자베스 하워드, 엘리자 루시 스노우, 해나 템펠드 킹 자매가 사진을 찍기 위해 모인 광경.
이 시기에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는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의 지시를 받아들여 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상호부조회 조직을 도왔다. 스노우 자매는 1880년에 제2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 되었고, 1887년 12월 5일 세상을 떠나기까지 봉사했다.

사진: 교회 역사 도서관 제공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의로 무장하여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서
오는,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힘



표지
사진: 코디 벨.

특집 기사

- 13 영적인 향연 준비하기
마누엘 에밀리오 시리아코
우리는 성찬식을 그저 일요일에 하는
또 하나의 모임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결과는 대단했다.
- 14 쏟아지는 주님의 영
상호부조회 조직 175주년을 맞이하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이
성스럽고 강력한 조직에 대한 간증과
통찰을 전한다.
- 26 충실한 누님께 얻은 축복
라파엘 앤틸런
델마 누나의 모범과 간증은 내
인생을 바꿔 놓았다.
- 30 복음과 훌륭한 삶
쿠엔틴 엘 쿡 장로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철학이 있지만
구주에 초점을 맞추고 가장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게 해 주는 철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쿡 장로가
이야기한다.

교회 본부 기사

- 8 2016년 10월 연차 대회 노트
- 10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교리를 가르칠 때 오는 권능
더글러스 디 흄스
- 38 신앙의 초상
마르쿠스 킬그너
- 40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덴디가 준 교훈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



48

44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폰 지 키치 장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임무, 즉
논쟁이나 화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다른 이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48 청년 성인 소개:
남아프리카에서 맛본 세상
맥케나 존슨

자신의 주변 성도들의 행동에 투영된
주님의 사랑과 이해를 인식하게 된 한
청년 독신의 이야기.

50 회개에 대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곱
가지—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우리는 종종 두려움으로 인해 회개를
미룬다. 여기 여러분이 진정으로
변화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찾게 해
주는 제언들을 소개한다.

54 의사가 지시한 대로
샬럿 라카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 것과는 달리,
회개는 달콤할 수 있다.

57 해답을 찾아서

하늘 어머니에 관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성교육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58 선교 임지에서:
작은 신앙으로 받은 풍성한 축복
이사이야스 바르가스 차바리아

60 우리들 공간

62 포스터: 희망은 선택입니다

63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신앙의 시험을 이겨 내는 방법
닐 엘 앤더슨 장로

64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기적
시저 에이치 보니토 두아르테
내 인턴 기간 내내 그 기계를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마지막 순간에
드리는 기도가 효력이 있을까?



76

66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제시카 라슨

새디는 여덟 살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아직도 새디의 침례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68 사도들의 답변: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69 질문 코너
어떨 때는 가족들 때문에 짜증이 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0 따뜻한 마음을 지닌 어린이:
사랑을 그리다
질 해킹

72 특별한 느낌
제인 맥브라이드
파울로는 침례받은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잘못을 저질렀어요. 성찬식이
그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74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았을 때
김 비 클라크 장로
제가 선지자를 처음으로 직접 보았던
때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75 교회사의 인물들:
교회가 조직되었어요

76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침례
킴 웰 리드

79 색칠하기:
저는 몸이 있어서 감사해요

54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힌트: 여러분은
키를 어떻게
재나요?

2017년 3월호 제54권 제3호.

리아호나 14443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책임회장: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럼,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집이사서도 정원화: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욥스, 엠 러셀 벨라드, 로버트 디 해일스,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트나, 쿠엔틴 앨 쿡,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날 앨 앤더슨, 로널드 에이 레스본스, 게리 이 스티븐스, 데일 지 랜런드

편집자: 조셀 더블유 시타디

부편집자: 랜들 케이 베네트, 캐럴 에프 맥קי

고문: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진 비 빙엄, 리그랜드 알 커터스 이세, 크리스토퍼 콜든, 더글러스 디 홀츠, 에릭 더블유 교우퍼추케, 래리 알 로렌스, 캐롤 엠 스티븐스

관리 책임자: 피터 에프 에벤즈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크레밀다 에머럴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니 비베터, 데이비드 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폴리트, 로리 폴러, 게리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질 크리스틴 해킨, 샬라 라카발, 마이클 알 모스, 에릭 비 머독, 샬라 존슨 오데커, 조슈아 제이 퍼키, 쟈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니, 민디 앤 셸루, 폴 펜텐버그, 마리아 윌슨

편집 인턴: 매건 알크넬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제넛 앤드루스, 페이 피 앤드루스, 시 킴볼 보드, 토마스 차일드, 데이비드 그린, 클린 힐클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텝 엠 무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레이철 스미스,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렌호스트

디자인 인턴: 마이클 넬슨

지역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온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슨

제작팀: 글렌 어데어, 콘니 바솔프 브릿지, 줄리 버넷,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넬슨, 가일 타데 러퍼터, 데렉 리처드슨

사진 인쇄: 조슈아 테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우 책임자: 트로이 케이 벨링가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store.lds.org에 접속하거나 해당 지역 교회 배부 센터나 워드, 지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 신청 및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권: 제612호, 제54권, 제3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7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한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클서비스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출판정보(주) 채종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liahona-korea@ldschurch.org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kr '물품신청' >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70-4816-25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 또는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시기나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틴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아나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도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7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를 관련 목적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March 2017 Vol. 41 No. 3.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3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이 실려 있다. 다음은 가정의 밤에 활용할 만한 두 가지 아이디어이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44쪽: 키치 장로는 사랑과 친절한 태도로 복음의 교리를 수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토론한다. 그의 말씀을 읽은 다음 가족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복음을 지키고 옹호해야 했던 때가 있었는지 묻고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다니엘이나 에스더와 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담대히 일어섰던 사람들의 경건 일화를 읽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였는가? 가족들이 여러 복음 주제에 대해 자신이 믿는 바를 차분하게 이해심을 보이며 나누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역할극을 해 볼 수 있다.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8쪽: 홀런드 장로는 우리가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했다. 가족이 함께, 각 가족 구성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되는 재능과 장점을 이야기해 본다. 다음 달까지 성취하고 싶은 가족 목표를 정해서 적어 보고, 그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 가족 각자가 가진 재능과 장점이 목표 성취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새로운 능력이나 기술이 필요할지를 토론한다. 얼마 후에 이 활동을 다시 해 보면서 가족들이 목표를 제대로 세웠는지, 또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격려한다.

인터넷 활용하기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facebook.com/liahona.magazine](https://www.facebook.com/liahona.magazine)에서 영감에 찬 메시지, 가정의 밤 제언, 그리고 친구 및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본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만 제공됩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 가족, 26, 30, 60, 69, 70
- 가족 역사, 40
- 감사, 30, 79
- 결혼, 30
- 계명, 80
- 교회사, 75
- 기도, 4, 61, 63, 64, 66
- 모범, 26, 44
- 방문 교육, 40, 41, 43
- 봉사, 41, 42, 63

- 사랑, 44, 70
- 상호부조회, 14, 40, 41
- 선교 사업, 26, 58
- 선지자, 4
- 선택, 30
- 성신, 41, 42, 63
- 성약, 4
- 성찬, 13, 63, 72
- 소망, 50, 62
- 속죄, 7

- 순종, 58, 80
- 신앙의 시험, 63
- 여성, 14, 26, 40
- 영적 보호, 4, 14, 80
- 예수 그리스도, 7, 76
- 우정 증진, 13, 43, 48
- 진리, 44
- 침례, 61, 66, 76
- 회개, 50, 54, 63, 72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의로 무장하여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죄와 부도덕과 악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¹

몬슨 회장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 말씀을 50년 전에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전례 없는 사악한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면, 오늘날 그 세력은 얼마나 더 큰 맹위를 떨치고 있겠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 경륜의 시대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원수는 뭉쳐 있다.”(교리와 성약 38:12)

우리가 “싸움 끝나는 날까지 [다 응모했던]”² 전쟁은 우리가 이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쟁은 지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수만 년 전 전세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곳에서 사탄은 모반하여 사람의 “선택의지를 멸하려 하였”습니다.(모세서 4:3)

사탄은 그 전쟁에 패하여 “땅으로 내쫓”겼고(요한계시록 12:9), 그는 오늘날 지상에서 그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그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켜 [거짓과 간계와 유혹으로] 그들을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76:29)

그는 선지자와 사도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순결의 법과 결혼의 신성함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과 성전에 대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고, 거룩하며, 성스러운 것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적에 맞서 우리는 어떻게 대항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완전히 에워싼 것처럼 보이는 악과 우리는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동맹이자 협력자는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권능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허락하는 만큼만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³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이 어린 양의 교회의 성도들과 온 지면에 흩어진 주의 성약의 백성 위에 내려움을 보았나니, 그들이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였더라.”(니파이전서 14:14, 강조체 추가)

어떻게 우리는 의와 권능으로 무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신권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며, 가족 역사에 힘쓰고, 성전에 갑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개하고자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적용하사 우리로 우리의 죄 사하심을 받게 하시옵”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모사이아서 4:2) 우리는 기도하고 봉사하고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쌓아”



됨으로써 우리 자신을 의와 권능으로 무장합니다.(교리와 성약 84:85) 우리는 거룩한 경전과 주님의 선택된 종들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가운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쌓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연차 대회 동안 그분의 뜻과 생각과 음성을 전합니다.(교리와 성약 68:4 참조)

악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항상 휘장 양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군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신이 포함되며, 또한 보이지 않는 천국 군대도 포함됩니다. 악한 군대가 에워싼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던 젊은 사환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열왕기하 6:15~16 참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에서 구해 달라는 제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악의 세력에 맞서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구주, 그리고 성신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둠의 힘도 이겨 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의로 무장함으로써 이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

주

1. Thomas S. Monson, "Correlation Brings Blessings," *Relief Society Magazine*, Apr. 1967, 247.
2. "싸움 끝나는 날까지", 찬송가, 179장.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214쪽 참조.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아 이어링 회장은 우리가 악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싸움 끝나는 날까지"(찬송가, 179장)를 함께 부를 수 있다. 그런 다음 그들이 의를 통해 보호받았던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고, 건전한 미디어 선택하기, 가족 평의회 열기, 매주 가정의 밤 하기 등과 같이 그들의 가족들이 사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해 보고, 떠오른 아이디어를 적용할 계획을 세워 보라는 목표를 준다.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매디슨 톰슨

한 번은 청년 공과 시간에 성적인 순결에 대해 배운 적이 있었다. 그 주제는 반 청년들에게 조금은 불편한 주제였다. 그날 배운 것이 모두 기억나지는 않지만, 내 청년 지도자 중 한 분이 자신의 개인적인 표준 중 하나가 언제나 성적으로 순결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 말이 내 뇌리에 남았고, 나도 그 표준을 내 개인적인 가치관 중 하나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했다.

하루는 스포츠 행사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진실 혹은 도전” 게임을 시작했다.(돌아가면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게임. 응답자가 “진실”을 택할 경우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야 하지만 답변을 거부할 경우 “도전”을 택하여 질문자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역자 주) 지루해하던

아이들은 그 게임에 동참했고 나도 같이 하게 되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도전”을 선택했고, 내가 옳지 않다고 믿는 무언가를 하라는 지시가 주어졌다. 다른 때 같았으면 망설이면서 결정하기 힘들어했겠지만, 순간 청년 지도자의 그 말이 떠올랐고, 그러자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었다. 나는 즉시 그 지시를 거부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마음속에 결정해 놓았던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배우는 것들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세상의 유혹이 달칠 때 더 큰 영적인 힘과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나는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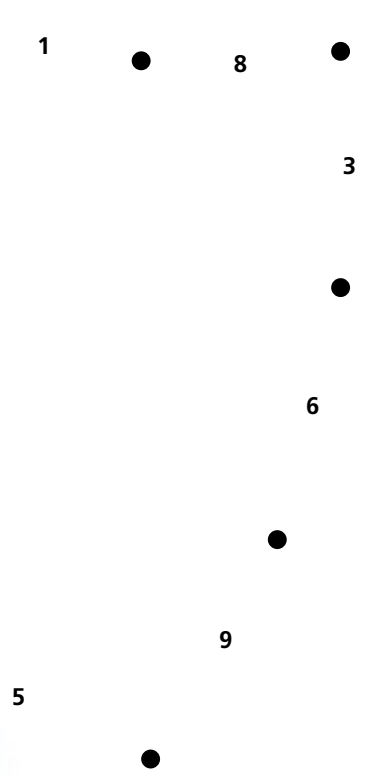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어린이

갑옷을 입으세요

오 늘날 세상에는 나쁜 것들이 아주 많아요. 복음은 우리를 그런 것들에서 보호해 주는 방패와 같아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열 가지를 아이어링 회장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한 개씩 읽고, 그 번호를 그림에서 찾아 양쪽의 점들을 선으로 이어 주세요. 선을 다 이었으면 색칠해 보세요!

1.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2. 신권을 영화롭게 한다
3. 성약을 맺고 지킨다
4. 가족 역사 사업을 한다
5. 성전에 간다
6. 회개한다
7. 기도한다
8. 다른 사람에게 봉사한다
9. 간증을 나눈다
10. 경전을 읽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서 오는,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힘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어떤 부분을 나눌지 알기 위해 간구한다.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딸들은 영생의 축복을 얻는 데 어떻게 더 잘 준비될 수 있는가?



신앙,
가족,
구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이 약점이 있지만, 우리는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낮추고 신앙을 가지면 연약한 것들이 강하게 될 것입니다.”¹

우리의 구주께서는 교리와 성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교리와 성약 84:88)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구주의 가능하게 하는 권능을 알고, 이해하며, 그에 의지했던 사람의 좋은 예는 니파이입니다. 니파이의 형제들은 니파이를 줄로 묶고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니파이가 드렸던 다음 기도를 주목해 주십시오. ‘주여 주를 믿는 나의 신앙을 좇아 나를 내 형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진정 내게 힘을 내리사 나로 하여금 나를 묶은 이 결박을 끊게 하시옵소서.’(니파이전서 7:17, 강조체 추가)

... 니파이는 그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바꿔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그는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니파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이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속죄의 권능을 알고, 이해하며,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니파이를 동여맸던 끈이 그의 두 손과 손목에서 마법처럼 풀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그는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넘어서는 의지와 힘을 축복으로 받았으며 그때 ‘주의 힘을 입[어]’(모사이야서 9:17) 스스로 끈을 당기고 비틀며 노력함으로써 마침내 문자 그대로 결박에서 풀려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²

추가 성구 및 자료

이사야 41:10; 이더서 12:27; reliefsociety.lds.org

주

1.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은혜의 은사”,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08쪽.
2. David A. Bednar, “Strength beyond Our Own,” *New Era*, Mar. 2015, 4.



생각해 볼 점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분의 속죄 희생이 어떻게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

2016년 10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6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 내용(그리고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전한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리 살펴보기

우리의 영적 생존의 열쇠는 기쁨이다

“하 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그분은 “고난은 잠시뿐”이며[교리와 성약 121:7]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성별되는 것이라고 우리를 안심시키시며 변함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이십니다.[히브리서 12:2] 생각해 보십시오! 구주께서는 지상에 주어진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견디기 위해 기쁨에 집중하셨습니다. …

행복을 찾기 위해 세상을 동경하며 세상의 공식을 따른다면, 우리는 절대 기쁨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 기쁨은 충실한 이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기쁨과 영적 생존”,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82, 83, 84쪽.

선지자의 약속



신앙으로도 할 수 없는 두 가지

1. “하늘 아버지는 … 사람이 의로운 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세에서도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필멸의 삶이라는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유하고 설득하실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사랑과 영감과 격려의 손길을 내미실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강요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성장을 위해 마련된 위대한 계획이 좌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2. “신앙으로 할 수 없는 또 한 가지는 우리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는 생각이 들어도, 혹은 아무리 진지하게 기도하더라도, 내 원을 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그렇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뢰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4층 마지막 집”,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16, 17쪽.



더 나은 회원 선교사 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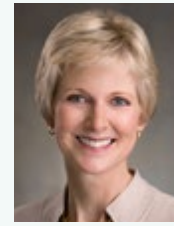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2013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은 회원과 선교사가 함께 일할 때입니다. ... 그분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 신앙으로 일한다면,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는 노력을 배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명의 사도가 우리에게 더 훌륭한 회원 선교사가 되기를 촉구했다. 2016년 11월호를 활용하거나 conference.lds.org를 방문하여 그분들의 말씀을 읽어 본다.

—닐 엘 앤더슨, “하나님의 증인”, 35쪽.

—델린 에이치 옥스, “회복된 복음을 나눔”, 57쪽.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완전한 모범이십니다. ...

구주께서 연민과 소망,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시듯, 우리도 복음이라는 빛으로써 타인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생에서 타인에 대해 너그럽게 생각하고 말한 만큼 우리에게도 그런 인정이 베풀어진 것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

우리 스스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의 서로 다른 발전 정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진 비 빙엄, 본부 초동회 회장단 제1보좌, “우리 집에 복음의 빛을 비출래요”,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6, 8쪽

연차 대회 일화

전환점

2016년 11월호를 활용하거나 conference.lds.org를 방문하여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전환점이 무엇이었던지 생각해 본다.

-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그가 제사였을 때 아론 신권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그 또한 강하게 되게 할지어다”, 75쪽 참조.
- 데일 지 렌랜드 장로는 그가 열두 살이었을 때 회개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회개: 기쁨을 주는 선택”, 121 쪽 참조.
-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는 물몬경에 대한 간증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그 책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라”, 44쪽 참조.
-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장로는 세미나리 학생이었을 때 물몬경을 읽는 방법을 어떻게 바꿈으로써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는가? —“뛰어난 선견자 하나를 내가 ... 일으키리니”, 27쪽.



conference.lds.org에서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 또는 청취할 수 있습니다.

교리를 가르칠 때 오는 권능

어떻게 하면 권능과 권세로 교리를 가르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가?

더글러스 디 홈스

본부 청남 회장단 제1보좌

제가 새로운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받았을 때, 저는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교부 임지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전임 선교사였을 때 느꼈던 그런 영으로 가득 찬 모임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지역 대회를 마친 후,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영이 풍성하게 느껴지지 않았으며, 몇몇 선교사들은 이 사업에 전념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와 선교사들의 삶에 영이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을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한 끝에 그리스도의 교리와 그 교리에 담긴 변화시키는 힘에 초점을 맞추고 가르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이를 실천하자, 몇몇 선교사들이 제게 찾아와 과거의 행동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선교부 규칙을 지키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는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셨던 보이드 케이 패커(1924~2015) 회장님은 종종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참된 교리를 이해하면 태도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복음 교리에 대한 연구가 행동을 개선하는 것은 행동에 대한 연구가 행동을 개선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입니다.”¹ 이런 가르침은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선교사들과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담긴, 마음을 변화시키는 권능과 힘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엘마서 31:5 참조) 우리가 계속해서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초점을 맞추자 선교부는 발전했고, 선교사들도 저희 부모도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리를 이해하면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보다 “왜” 순종해야 하는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왜 그렇게 강한 영향력을 주는가?

제일회장단 제1보좌이신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선지자들이 가르친 교리입니다.”² 참된 교리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영을 통해 그분의 교리를 배우고 얻게 될 때, 그 교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워 줍니다.(엘마서 32:38~43; 모로나이서 7:25, 31~32 참조)³ 신앙은 “모든 행동과 행위의 동기”가 됩니다.⁴ 영에 감동된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회개하고 순종하려는 소망은 커지며, 우리는 변화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 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습니다.(엘마서 31:5) 책에 적힌 글귀나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에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어질 때, 그 말씀은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고린도전서 2:4; 데살로니가전서 1:5; 모사이야서 5:2; 엘마서 5:7; 교리와 성약 68:4 참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영으로 가르칠 때, 성신은 학습자들의 마음에 빛과 진리를 가져다줍니다.(요한복음 6:63; 니파이후서 33:1; 교리와 성약 84:45 참조) 학습자들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은 그들의 생각을 밝혀 주고 마음을 변화시켜 그들의 동기와 행위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리를 이해하면 태도와 행동이 달라”진다는 말씀의 강력한 증거는 바로 물론경입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 베냐민 왕은 천사에게서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영은 백성들의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켜 그들은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했습니다.(모사이야서 5:2)
- 엘마가 백성들을 가르쳤을 때, “그들의 영혼이 영원하신 말씀의 빛으로 밝혀졌”고,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엘마서 5:7; 또한 9절 참조)
-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인하여(엘마서 26:13) 수천의 레이맨인들에게 온전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왔습니다.(엘마서 17:14~17; 53:10 참조)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권능과 권세로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엘마서 17:3; 힐라맨서 5:18 참조) 교육이나 종교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칠 때 교리의 권능을 얻기를 바란다면 다음 제안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말씀을 보배롭게 간직하고 말씀에 따라 생활한다. 권능과 권세로 교리를



단순함이 이해를 불러옵니다.

“복음의 첫째 원리를 가르치고 또다시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에게 매일 그것에 관한 새로운 개념과 추가적인 빛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더욱 넓어지고 또 더욱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6:323.

가르치려면 우리는 먼저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에게 말씀을 선포하려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얻으려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그들이 그들의 영과 그분의 말씀, 즉 “사람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1:21) 하워드 더블유 헌터(1907~1995) 회장이 일찍이 가르쳤듯, 이런 이해를 얻으려면 “평소에 하는 것과는 다른 깊이 있는 진지한 읽기”가 필요합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공부해야 합니다.⁵

하지만 단순히 공부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 교리를 알고자 한다면, 그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요한복음 7:17; 엘마서 12:9 참조)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삶에 적용할 때, 그분의 말씀에 깃든 권능을 “우리 안에” 갖게 됩니다.(엘마서 26:13; 또한 엘마서 17:2~3; 32:42 참조)

2. **교리를 가르친다.** 우리는 주의하여 참된 교리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신은 “진리의 성령”입니다.(요한복음 15:26) 우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 ... 이외의 것은 아무 것도” 선포하지 않으며(교리와 성약 52:36) 추측이나 개인적인 해석을 피할 때 학습자들은 성신의 확증하는 증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가까이 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단순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모사이야서 25:22; 제3니파이 11:39~40 참조) 그와 더불어, 우리는 회원들이 나누는 의견과 경험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에 연관 지어야 합니다.

3. **영으로 가르친다.** 가르칠 때, 우리는 초점이 우리 자신에게 맞춰지지 않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념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 하거나 우리 자신을 돋보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고했습니다. 그가 그들과 함께 거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합니다.(고린도전서 2:3; 또한 4절 참조) 이 말에 따르면 바울은 가르칠 때 잘 짜인 자료를 연습한 후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성신이 진리를 가르치도록 여건을 마련해 두고 우리는 자리를 비켜 주어야 합니다. 가르칠 준비를 하는 동안, 여러분의 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신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공과반에 영을 초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십시오. 공과반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는 영의 인도와 지시를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잠시 멈추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생활하며 성신의 권능에 의해 참된 교리만을 가르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이며 우리가 가르치는 자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권능과 권세로 제게 참된 교리를 가르쳐 주신 교사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

주

1. Boyd K. Packer, “Little Children,” *Ensign*, Nov. 1986, 17.
2. 헨리 비 아이어링,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 미치는 권세”,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85쪽.
3.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29쪽)
4. *Lectures on Faith* (1985), 1-2.
5. 하워드 더블유 헌터, “경전 읽기”, *성도의 빛*, 1980년 3월호, 94쪽.

영적인 향연

준비하기

마누엘 에밀리오 시리아코

내가 감독단 제1보좌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 와드는 성찬식 참석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감독단으로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원들을 강화할 지혜를 구했다.

주님께서는 성찬식을 영적인 향연으로서 강조해야 한다는 영감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회원들과 그들의 친구, 그리고 이웃들에게 성찬식에 와서 영적인 잔치를 경험해 보도록 초대하는 방안을 생각했다. 그리고 “영적인 향연에 와서 듣고, 보고, 주님이 함께하심을 느껴 보십시오”라고 적은 초대장을 만들었고 이를 청남 청녀를 포함한 모든 회원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여덟 명으로 구성된 작은 와드 합창단도 꾸렸다.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찬송가와 연사들을 선별했고, 성찬식의 경건성을 유지하도록 도와 달라고

회원들에게 부탁했다.

영적인 향연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다! 그 주 일요일 성찬식에는 42명의 구도자와 저활동 회원이 다녀갔다. 그다음 주에는 64명에 이르는 구도자와 저활동 회원이 영적인 향연에 참석했다. 석 달이 지나자 예배당에 다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인원이 늘어났고, 6개월 후에는 와드가 너무 커져서 와드를 두 개로 분리할 준비를 해야 했다.

우리는 성찬식을 단순히 일요일 모임으로서가 아니라 성스러운 경험을 하는 시간으로 바라볼 때, 사랑하는 이들에게 성스러운 영적 향연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권유할 귀한 기회가 매주 생긴다는 사실을 배웠다.

성찬식이 더욱 경건해지고 회원들이 성찬식을 통해 더 풍성한 영을 느끼도록 돕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자, 성찬식에 점점 많은 사람이 함께했다. 교회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와서 기쁨을 보고, 느끼고, 찾았던 것이다. ■

글쓴이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산다.



우리는 “영적인 향연에 와서 듣고, 보고, 주님이 함께하심을 느껴 보십시오”라고 적은 초대장을 만들었다.

어떻게 하면 성찬식이 더 영적인 의식이 될 수 있는가?

- 성찬식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려면 어떻게 할지 가정에서 토론한다. 준비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 성찬을 집행하는 신권 소유자들은 성찬을 회원들과 나누는 일에서 그들이 주님을 대표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경건하게 의식을 집행한다. 성찬을 축복하는 이들은 성찬 기도문을 단순히 단어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성스러운 교통이 되게 한다.



1842년 3월 17일,

에머 스미스는 새로
조직된 나부 여성
상호부조회의 회장이
된 직후에 이 단체의
목적은 이와 같이
밝혔다. “궁핍한
이들을 찾아 돕고”,
“선을 행하고자
열망하며”, “도덕적인
표준을 수호하는 것”¹

“상호부조회는 빈곤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조직입니다.”²
—조셉 스미스





쏟아지는 주님의 영

상호부조회 창립 175주년을 맞이하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사랑과 힘을
실어 전하는 메시지. 회장단이 상호부조회
자매로서 이야기하는 개인적인 느낌과
통찰, 그리고 간증을 들어 보자.

저회는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을 사랑합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린다 케이 버튼 자매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을 대표해 인사를 전한다.(제1보좌: 캐롤 엠 스티븐스
자매, 제2보좌: 린다 에스 리브즈 자매) “영생을 바라보며 성약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서로 돕는 것 외에 무슨 일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서 1장 39절에서 자신의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보라,
사람[즉, 남성과 여성]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상호부조회에서 우리는 여성들이 영생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갖추도록 돕습니다. 그 준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기르고,
의식과 성약을 통해 개인과 가족, 가정을 강화하며, 하나로 단합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함께 일할 때 이루어집니다.”³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 후기 성도 여성인 우리는
세상의 유익을 위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좋은 면으로 ...
두드러지며 달라 보일 것입니다.’⁴ 저희는 우리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교회 잡지의 기자와 진행한 본 인터뷰에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답을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나무 상호부조회가
붉은 벽돌 상점 설립.



아메리칸 인디언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의복을
만들 목적으로 처음으로 유타
상호부조회가 조직됨.

1840

1842

1844

1850

1854



에머 에이치 스미스
1842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의
순교.



조셉과 하이럼의 순교 그림의 일부.
게리 어네스트 스미스



유타

상호부조회는 영혼을 구하고 궁핍한 이들을 돌보고자 꾸준히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상호부조회는 윌리 및 마틴 손수레 부대의 생존자들을 비롯해 유타로 들어오는 이주민들을 보살피며 생필품과 식량을 공급하고 의료적인 필요 사항을 지원했다. 1868년 초에 현지 와드의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사람들이 모이고, 빈곤한 이들을 돌보며, 사업을 운영하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상호부조회 회관 공사를 시작했다. 와드 상호부조회 회관 공사는 1924년에 마무리되었다.

1. 상호부조회의 어떤 면이 문화와 상황이 다른 여성들을 한데 묶는 것일까요?

버튼 자매: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생활하다 보면 문화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작년에 제가 우루과이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만난 한 자매님은 자신이 가장 힘겹던 시기에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받았던 경험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매님은 “지금은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고 싶으셨지만 성스러운 성약을 맺으셨기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제게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제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분의 속죄에 힘입어 저는 해낼 수 있습니다.” 자매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들께 봉사하자 이 부름이 제 삶을 밝혀 주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의지했고 주님은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자매님의 이야기 속에서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은 자매님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자매님은 성스러운 성약을 맺으셨기에 그 성약을 지키고 싶으셨습니다.

자매님은 감독님과 힘을 합쳐 일하며 부름을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자매님은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간증이 있으십니다. 거기에 제 간증을 더하겠습니다. 우리가 필멸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불공평해 보이는 일을 겪을 때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스티븐스 자매: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깃든 권능을 믿는 신앙은 우리를 단단히 묶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이 마련하신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알 때,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영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미혼인 사람도 있고,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있으며, 결혼했으나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사람도 있고 남편과 헤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할 일, 그리고 목적을 이해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리브즈 자매: 우리는 하나가



브리검 영 회장이 엘리자 알 스노우에게 부름을 주어 교회 전체에 상호부조회가 설립되는 것을 관리하게 함.

50년 동안 상호부조회의 목소리를 대변한 여성의 전형 발간 시작.

1860

솔트레이크 제15와드 상호부조회가 최초로 상호부조회 모임 회관을 지었으며, 이후 50년 동안 120여 곳이 더 마련되었음.



1868

1870

1872

유타의 여성들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여성들에 속함.



1880

엘리자 알 스노우
1866



될 때 행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기 때문입니다.(제4니파이 1:15 참조) 단합은 모든 경계를 허무합니다. 저희는 자매님들께서 그러한 구주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자 서로 힘이 되어 주며 하나가 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상호부조회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티븐스 자매: 저희 회장단은 자매님들이 각자 영원한 정체성을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항상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성으로서 모든 이를 이롭게 할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시다. 전세에서 우리는 지상에서 할 일을 배우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또한, 위대한 천국 회의에 참석하여 그리스도의 속죄를 포함하는 하늘 아버지의 계획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필멸의 몸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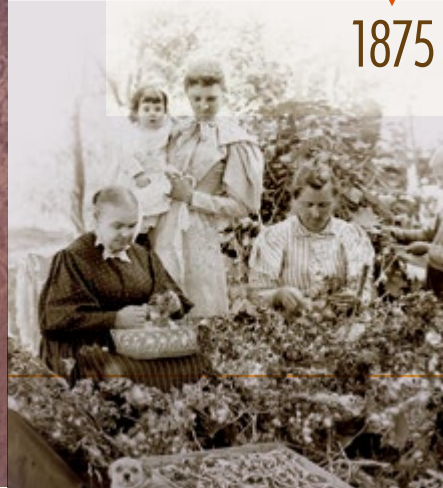
어머니 이브로부터 시작하여 지상에 온 여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1842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지나 디 에이치 영의 주도로
데저렛 실크 협회[Deseret
Silk Association]가 조직됨.

초등회
조직
시작.

1875



1876

에멀린 비
웰스가
새로운
곡물 비축
프로그램
주도.

1878



1880

제2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성별.

가장 오랫동안

상호부조회가 운영한
경제적 사업은 1876년부터
1918년까지 운영한 곡물
비축 프로그램이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밀
부족 현상이 일어났을 때
미국 정부의 강제적 요청에
의해 그동안 비축했던 밀을
매도해야 했다. 이렇게 생긴
수익금은 산모와 신생아
사망률을 줄이고,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진료소를
짓기 위한 기금을 제공하며,
보건 교육을 지원하고,
출산용품을 비축하는 데
쓰였다.

언제나 존재했던 신권 방식을 좇아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여성들을 조직하여
상호부조회를 만들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직접 알아보[십시오.] 여러분에
관해, 또한 이곳 지상에서 여러분이
맡은 사명에 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쭙 보십시오. 진정한 의도로 묻는다면,
시간이 감에 따라 영은 인생을 바꿀 진리를
속삭여 줄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기록해서
자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을 정확히
따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시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리라는
것을 약속합니다!”⁵ 성전에 가서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알고자 소망하며 들어 보십시오.

**3. 어떻게 하면
하루가 분주하기만
한 여성들이
상호부조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스티븐스 자매: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서아프리카에 가서 본
여성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머리에 이고서
집으로 날라 둔
뒤 생계를 꾸리러
나갔습니다. 저는
그토록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그런 후 저는
깨끗한
흰 셔츠와



“상호부조회는 …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현세적인 축복을 베풀고,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잘못을 하는 이들을 제지하고, 더 발전하고, 여성의 동정심과 자애를 보임으로써 여성들이 영적인 힘과 인류 가족의 구속 사업에서 더 큰 선을 성취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거의 반세기 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처음으로 조직하였습니다.”⁸—지나 디 에이치 영

상호부조회가
데저렛 병원을 설립함.



1882



1887

1889년, 상호부조회 여성들이 전국 여성 참정권 협회의 유타 및 아이다호 지부를 조직.⁷



지나 디 에이치 영
1888

1889

지나 디 에이치 영 회장이 첫 번째 상호부조회 대회를 조직함.

1890

1891

상호부조회는 미국 여성 위원회의 창립 회원이었다.



손수 만든 색색의 원피스를 입고 훈련 모임에 오신 교회의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풍족하게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선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그분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분들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필요한 건 없습니다. 복음과 가족이 있으니 필요한 건 다 있는 셈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하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삶의 순위에서 밀려날 것입니다.

4. 상호부조회는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요?

버튼 자매: 청년들은 상호부조회로 올라오면서 예언이 성취되도록 힘을 보탬 기회를 연습니다. 1979년, 스펜서 더블유 김블(1895~1985)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세상의 훌륭한 여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 이런 일은 교회의 여성들이 … 좋은 면에서 세상 여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두드러지며 달라 보이느냐에 따라 일어날 것입니다.”⁶ 이 계시가 이루어지려면 청년들이



미혼 여성이 전도하는 선교사로 처음 성별됨.

상호부조회 잡지에는 말씀과 영감받은 소설, 시, 전기, 정보 제공 기사 및 월간 공과 계획이 실렸음.

1896

유타가 주로 승격.

1898



1900

1902

상호부조회 역사와 연설문, 지침이 담긴 상호부조회 지침서가 처음으로 출판.

밋세바 더블유 스미스
1901



첫 번째 편집자인 수사 영 게이츠.



에밀린 비웰즈
1910



1914

상호부조회 잡지 창간. 여성의 전형 폐간.

사회 서비스부

조셉 에프 스미스(1838 ~1918) 회장의 요청을 받은 에이미 브라운 라이먼에 의해 1918년에 설립되었다. 라이먼 자매는 사회사업에 사용되는 전문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 과정도 조직했다. 사회 서비스부는 대공황 초기에 많은 사람들을 도왔으며, 궁핍한 사람들에게 필요 물자가 지급되도록 지방 및 연방 정부와 힘을 모았다.

지닌 특별한 은사와 관점, 그리고 재능이 필요합니다.

2015년,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김볼 회장님의 기사를 두고 청녀를 비롯한 모든 여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볼 회장님이 미리 보신 그 여성들이란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확고히 이해하[는] 여성들이 필요합니다. ... 하나님께서 성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권능을 지니는 법을 [아는 여성], ... 어머니 이브처럼 용기와 예지력이 있는 여성이 필요합니다. ...

부디 김볼 회장님의 예언을 성취하십시오. ...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성신이 여러분의 영향력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확대해 [줄 것입니다].”⁹

리브즈 자매: 우리는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¹⁰ 상호부조회에서 있다 보면 우리는 서로 다른 점보다 비슷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모두 소셜 미디어와 광고, 그리고 세상이 환호하는 사람들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여성의 가치는 세상의 잣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과 자신을 비교하다 보면, 우리도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에서 생겨난다는 점을 기억할 때입니다. 우리의 저력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우리 구주와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자매들과 맺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 힘을 활용하십시오.

스티븐스 자매: 청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후일에 다칠 고난을 굳세게 이겨 낼 힘을 갖고 태어난 세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이해하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며, 자매들 및 신권 지도자들과 하나 되어 일하는 여성이 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여성이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사회 서비스부는 오늘날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 및 후기 성도 인도주의 서비스의 전신이었음.

교회 복지 프로그램이 1936년에 설립됨.



상호부조회가 의복, 식량, 봉대, 그리고 북미 및 유럽 지역의 자매들이 만든 퀼트 수천 점을 전후 유럽의 성도들에게 구호물자로 보냄.

1918

상호부조회가 미국 정부에 밀을 매도함.

1921

상호부조회가 신생아 및 산모 생존율을 높이고자 주력함.



1930

1921년에 제정된 셰퍼드 타우너 법(Sheppard-Towner Act)의 혜택이 유타에도 돌아가도록 에이미 브라운 라이먼이 주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1923년에 당선되었다. 셰퍼드 타우너 법의 목표는 신생아 및 산모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었다. 라이먼 자매는 정부 프로그램과 상호부조회 프로그램을 조율했다. 1928년까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신생아 사망률은 19% 감소했으며 산모 사망률은 8% 감소했다.

1936



1940

상호부조회 자매들 전쟁 구호 사업에 참여.

클러리사 에스 윌리엄스
1921



루이스 와이 로비슨
1928



에이미 비 라이먼
1940



누구이며 장차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해 간증을 나눕시다. 기쁨과 환희의 메시지를 서로 나눕시다.

5. 신권 소유자와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요?

버튼 자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은사와 재능으로 왕국의 사업에 기여하고 서로 강화합니다. 여성은 주님의 창고에서 절반을 차지하며, 이 사업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브를 시작으로 사라와 리브가, 에스더, 마리아, 엘리자베스, 에머, 엘리자 등 고대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살다 간 용기 있는 자매들이 해 온 것처럼, 우리는 왕국 건설에 기여할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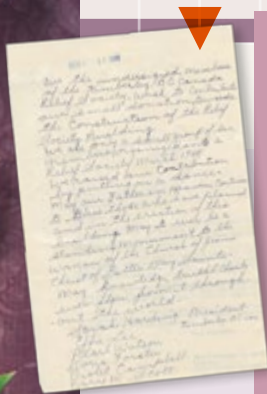
권능과 영향력을 생각할 때, 대개 권능이라 하면 신권 권능을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의로운 영향력에도 굉장한 힘[권능]이 있습니다. “설득”, “오래 참음”, “온화함”, “온유함”, “거짓 없는 사랑” 등 교리와 성약 121편 41절에 언급된 항목들은 신권 권능에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영향력에 깃든 힘에 필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성한 품성에 이러한 덕목이 내재하기에 우리는 강력한 방식으로 선한 영향력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김벌리 지역의 여섯 명으로 구성된
상호부조회가 솔트레이크시티에
상호부조회 건물 건축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무용 공연을 기획함.

1956년에 헌납된 새로운 상호부조회 건물은
상호부조회 본부 임원회 및 상호부조회 회장단,
상호부조회 잡지 편집자들, 그리고 성전 의상
작업자들의 의 업무 및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다.



1949

일본에서
첫 번째
상호부조회가
조직됨.



1956



1960

벨 에스 스페포드
1945



상호부조회 기념 접시 사진.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상호부조회 건물 개관



벨 에스 스페포드
자매는 오랜 기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는데, 이때
상호부조회와 교회의
다른 보조 조직들은
중복되어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을 제거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고, 낭비를 줄이며,
세계적으로 무섭게
성장하는 교회의
내부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교회
내에서 더욱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어난
변화에는 교회에서
발행하는 잡지들의
재조정 및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보조 조직 은행
계좌 폐지 등이 포함된다.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권 형제님들과 하나 되어 일할 때,
우리는 조금씩 더 시온에 거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 갑니다.(모세서 7:18 참조)

리브즈 자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는 하나님은 최대한 많은 자녀들을
데려오시고자 그 일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따라 남성의 힘을 활용하기도 하고 여성의
힘을 활용하기도 하신다는 것이 드러납니다.¹¹
상호부조회의 목적은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6.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선지자들과 어떤
식으로 함께 일하십니까?**

버튼 자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실 당시 여성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셨듯,
오늘날 그분의 사도들 또한 우리를 대변해
주십니다. 우리 선지자들께서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항상 교회 자매들의 생각과
의견을 청정하십니다. 저희 회장단이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와 정기적으로 함께하며
경험하는 것들을 교회의 모든 자매님들이
보고 듣고 느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은 참된 제자들로서 자신을
내려놓고 기꺼이 주님께 삶을 헌신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노력하고 그분이 정하신
시간을 신뢰하십니다. 또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교회를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자주 간증하십니다.

리브즈 자매: 저희는 자주 지도자들과
의견을 나눕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저희에게 의견을 물으시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의
형제님들은 저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그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공통된 목적을 바라보며 저희와
협력하십니다.

스티븐스 자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주님을 아시며,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여성 지도자들과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경전에 나오는
주님의 모범을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성들을 변호하셨고, 여성들을 배제하지

11.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케이 버튼 자매가 제프리 앤 홀랜드 장로와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를 만나고 있다.

벨 에스 스페포드 자매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할 당시 전국 여성 위원회 회장으로 임명됨.



엔사인[Ensign] 잡지 창간. 1971년 1월.

교회 회원 중 18세 이상의 자매들이 상호부조회에 자동 등록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던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가 2,400여 평에서 수확한 미화 1,651,157달러 가치의 상호부조회 밀과 750,000달러의 자산 기금이 기록된 보고서를 제일회장단에게 전달.



1966

상호부조회 잡지의 스페인어판 창간.

1968



1970

상호부조회 잡지 폐간호.

1978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자,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가족과 사회에 공헌하는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옹호함.

1980

1982

상호부조회 창립 140주년.

상호부조회, 청년, 초등회가 "여성에 대한 찬사"라는 주제의 행사를 공동 후원.

바바라 비 스미스
1974



바바라 더블유 와인더
1984



않으셨으며, 여성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제일회장단이나 십이사도 정원회의 형제님들과 평의회를 할 때면 종종 저는 그분들을 바라보며 "구주가 눈앞에 계시면 이런 느낌이 들지도 몰라." 라고 생각합니다.

7. 영적인 권능과 성약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스티븐스 자매: 우리는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음으로써 영적인 권능을 얻습니다. 또한, 성약을 지킬 때도 영적인 권능을 얻습니다.

일요일에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도 우리는 영적인 권능을 얻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과 맺은 모든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항상 그[분]의 영광 함께"하고자 노력합니다.(교리와 성약 20:77, 79)

버튼 자매: 니파이는 영적인 권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 니파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이 어린 양의 교회의 성도들 ... 위에 내려움을 보았나니."(니파이전서 14:14) 이 구절에 나온 성도들이란 당연히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니파이는 같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어린양의 권능이 "은 지면에 흩어진 주의 성약의 백성 위에 내려움을 보았나니, 그들이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한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약의 백성", 즉 성약의 남성과



상호부조회가 문맹인 교회 회원들에게 기초 읽기 쓰기를 가르칠 목적으로 "복음 읽고 쓰기[Gospel Literacy Effort]" 활동 시작.

코소보 난민들에게 보내기 위한 켈트 3만 점 수집 행사에서 35만 점의 켈트가 수집됨.



	<p>1992 상호부조회 창립 150주년.</p>	<p>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일레인 엘 잭이 전 세계의 상호부조회에 지역 사회 봉사 및 기타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함께 상호부조회 창립을 기념할 것을 제안함.</p> <p><small>사진: 제이슨 스펜슨. DESERET NEWS</small></p>	<p>1999 본부 회장인 메리 앨런 더블유 스무트 자매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2차 세계 가족 대회에서 연설함.</p>	<p><small>SARAH LARSEN / KIMBLE / GETTY IMAGES</small></p>
<p>일레인 엘 잭 1990</p>		<p>메리 앨런 더블유 스무트 1997</p>		<p>보니 디 파킨 2002</p>

오늘날

상호부조회는 지난 175년간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행사한 지도력에 힘입어 세계 곳곳에서 궁핍한 이들을 돕고 있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지역의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자매들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다가 자매들은 한 노인 수용 시설을 찾아 방문했는데, 그 시설 내의 어느 방에는 옷도 걸치지 않은 채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있는 여성들이 있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음식을 먹여 주고, 머리를 손질해 주었다.

여성으로서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약을 지키는 모든 이의 신성한 운명입니다.

스티븐스 자매: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신성한 운명에 이르는 일을 이해하게 해 줍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둘째,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맺은 의식과 성약을 통해 신권에 갖든 모든 축복과 권능,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임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시대부터 아버지에서 아들로 신권이 성임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차였습니다.

리브즈 자매: 아버지는 우리가 당신 품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으며,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우리는 그것들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성약을 지키는 여성은 그 점을 알아볼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8.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버튼 자매: 교리와 성약 45편 3절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한 변호자가 되는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는 아버지 앞에 너희 문제를 변호하고 있나니 -.”

“그러하오즉 아버지여, 나의 이름을 믿는 이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내게 나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느니라.”(5절)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온유한 마음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대변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께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을 키우고 그분들을 사랑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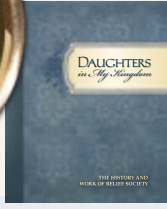
오늘날 온 지면에 흩어진 하나님의 성약의 딸들로서 우리는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기억하고 우리가 맺은 성약 안에서 기뻐하며 성약을 지킬 때, 우리는 “세상 여성들 사이에서 좋은 면으로 두드러지며 달라 보이”게 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



2010년 10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줄리 비 백 자매가 상호부조회 역사가 새로 출판된다는 소식을 알림.



줄리 비 백
2007



2010

2011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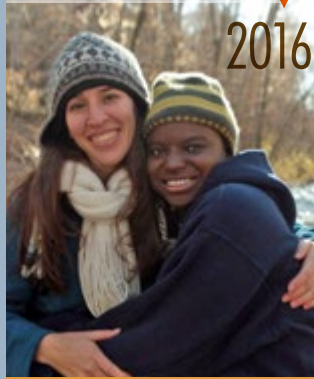
“상호부조회의 역사를 연구하고 적용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 추종자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알 수 있습니다.”¹²—줄리 비 백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린다 케이 버튼이 전 세계 교회 회원들에게 난민 구호에 힘을 보낼 것을 권고.(IWasAStranger.lids.org 참조)

2020

2016

2017



상호부조회 창립 175주년.



상호부조회 역사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history.lids.org/women에 들어가 본다.

린다 케이 버튼
2012



주

1. Emma Smith, Relief Society Minute Book, Mar. 17, 1842, 13,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2. Joseph Smith, Relief Society Minute Book, June 9, 1842, 63.
3.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9.1.1 참조.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터블유 킴볼(2006), 223쪽.
5. 러셀 엠 넬슨, “진정한 밀레니얼 세대로서 우뚝 서십시오”, 리아호나, 2016년 10월호, 49쪽.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터블유 킴볼(2006), 223쪽.
7. Jill Mulvay Derr, Janath Russell Cannon, Maureen Ursenbach Beecher, *Women of Covenant: The Story of Relief Society* (1992), 138 참조.
8. Zina D. H. Young, “First General Conference of the Relief Society,” *Women’s Exponent*, Apr. 15, 1889, 172.
9. 러셀 엠 넬슨, “자매님들께 드리는 간청”,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96, 97쪽.
10.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소책자, 2009), 3쪽.
1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12. 줄리 비 백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일”,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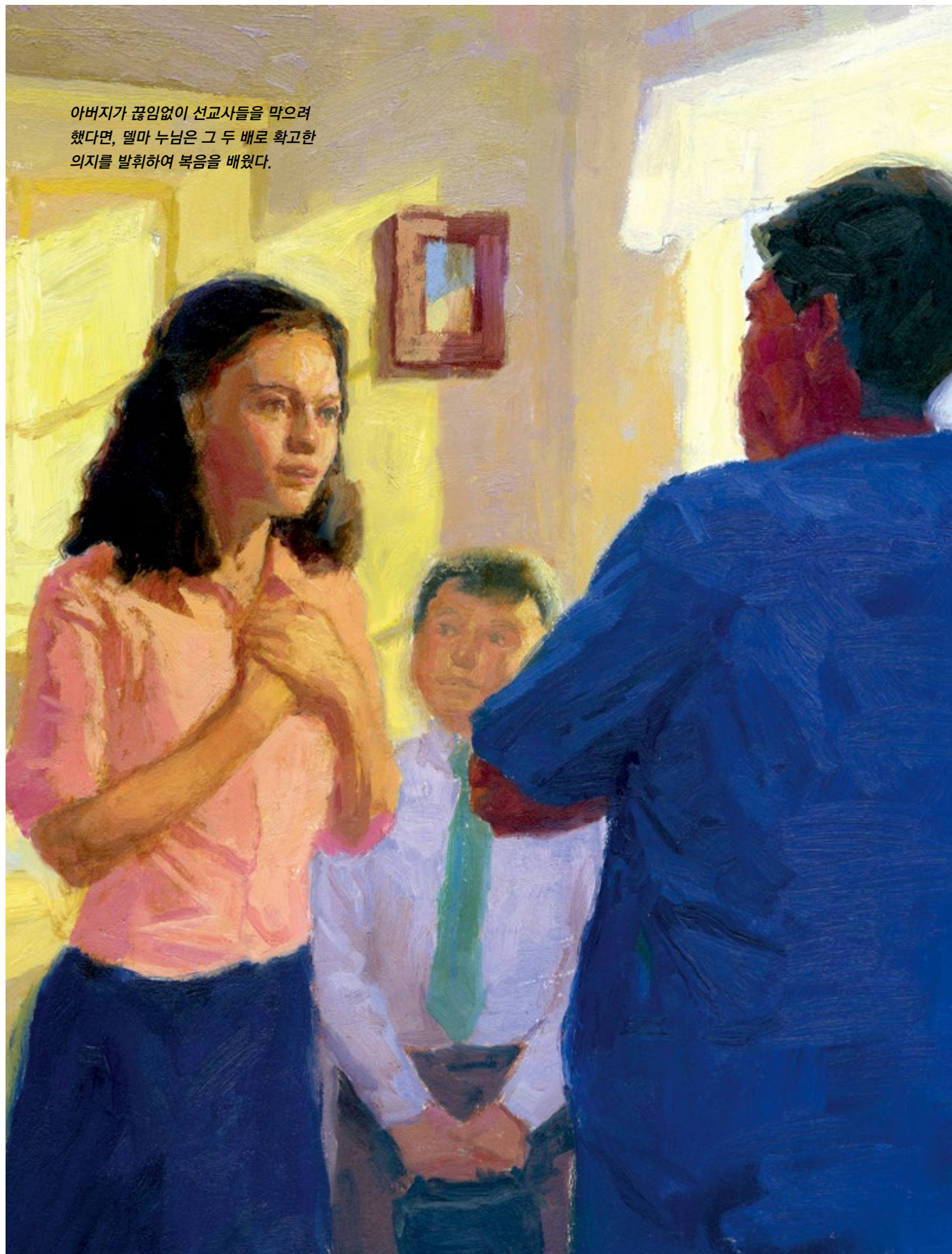
본 인터뷰는 교회 잡지의 라린 포터 건트가 진행했으며, 연대표 및 연대표 관련 정보는 교회 역사부의 케이트 홀브룩이 제공했다.

상호부조회의 목적

상호부조회는 다음 사항들을 통해 여성들이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돕는다.

-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키운다.
- 성약과 의식을 통해 개인과 가족과 가정을 강화한다.
- 궁핍한 사람을 돕기 위해 단합하여 일한다.

아버지가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막으려
했다면, 델마 누님은 그 두 배로 확고한
의지를 발휘하여 복음을 배웠다.



충실한 누님께 얻은

축복

누님의 의로운 영향력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라파엘 앤틸런

현 신적이고 담대하신 어머니와 지혜롭고 충실한 누이들, 그리고 다정하고 든든한 아내는 내 삶을 축복해 준 훌륭한 여성들이었다. 모두 내게는 더없이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여기서는 그중에서도 끊임없는 모범으로 나를 이끌어 준 텔마 누님 이야기를 하려 한다.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시면 텔마 누나 말을 들으라고 말이다. 나는 그 말씀을 영원히 감사히 여길 것이다.

배우겠다는 결심

우리 집에는 여덟 남매가 있는데, 그중 나를 포함한 셋이 엘살바도르에서 같은 시기에 교회에 들어왔다. 그 무렵 맞이했던 텔마 누님은 열네 살이었고 막내인 나는 여덟 살이었으니 당연히 우리 중 대장은 텔마 누님이었다.

우리에게 교회를 알려 준 사람은 노래를 곧잘 하던 이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노래들은 찬송가였다. 이웃은 초등학교라는 멋진 곳이 있다며, 거기 가면 어린이들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우리 얘기를 듣고 우리를 가르치러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교회를 못마땅해하셨고 선교사들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도 싫어하셨다. 그때 나는 어렸기 때문에 두 장로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집에 온 선교사들을 쫓아내 버리고, 장로들이 밤에 들를라치면 일부러 불을 꺼 버리기가 예사였다. 아버지가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막으려 했다면, 텔마 누님은 그 두 배로 확고한 의지를 발휘하여 복음을 배우고 몰몬경을 읽었다. 텔마 누님과 장로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도 누님과 장로들의 노력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아버지가 온갖 수를 동원해 방해 공작을 펴시는지라 우리는 교회에 가려면 전쟁을 치러야 했다. 이를테면, 교회에 가려면 집안일을 다하고 가라는 식이었다.

아버지가 유난히 우리를 까다롭게 대하던 어느 일요일이었다. 아버지도 아버지였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았다. 급기야 아버지는 쓰레기통을 걷어차셨고, 우리가 막 청소해 놓은 바닥으로 내용물이 와르르 쏟아졌다. 텔마 누님은 잠자코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닥을 다시 다 치운 후 우리가 교회에 가도 되는지 아버지께 물었다. 우리가 집안일을 모두 마쳐도 순순히 교회에 가란 소리가 나오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마침내 이렇게 쏘아붙이셨다. “왜 그렇게 그 교회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냐?” 그러자 텔마 누님은 복음의 참됨과 회복에 대해 힘주어 간증했다. 누님이 말을 마치자 아버지는 알았다며 마지못해 허락을 하셨다.

그 뒤로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막지 않았고, 내키지는 않지만 침례도 허락해 주셨다.

봉사로 시작한 길

나는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토요일 아침에 하던 초등학교에 참석하는 일만큼은 좀 시들했다. 내가 열 살 무렵의 어느 토요일, 집으로 돌아온 누님은 우리를 모아 놓고 집사들과 불꽃반(11세 스카우트반)이 멋진 축구 경기를 했다고 재미있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에 가지 않아서 그 경기를 놓친 내가 참 안 되었다고 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나는 그다음 토요일에 (축구화를 신고) 초등학교에 갔고 다시는 초등학교에 빠지지 않았다.

텔마 누님은 열여섯 살 때 초등학교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초등학교 조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감독님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사람을 찾으려고 한참 애를 쓰고 계셨다. 우리 와드는 지역이 굉장히 넓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은 가정의 부모들에게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초등학교 모임과 일요일 모임에 참석하려고 버스로 먼길을 움직인다는 것은 매우 버겁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다보니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참석하지 못했고, 해결책도 마땅치 않았다. 감독님은 텔마 누님에게 부름을 주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누님이 워낙 어렸기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다. 그러나 영의 속삭임이 계속되자, 감독님은 스테이크 회장의 승인을 받아 누님에게 부름을 주셨다.

이것은 영감 받은 결정이었다. 덕분에 나를 포함한 많은 어린이가 축복을 받았으니 말이다. 텔마 누님은 영감을 따르는 한편 누구라도 이해할 방법을 고민했으며,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가져다줄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기 위해 남다른 방법을 실행함으로써 부름을 영화롭게 했다. 보좌들과 교사들이 각자 집에서 가까운 몇몇 장소에서 초등학교 모임을 진행하도록 부탁하고, 자신은 교사들을 계속 훈련한 것이다. 이 방법으로 회원들은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었고, 초등학교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던 어린이들은 초등학교라는 놀라운 조직에서 축복을 얻었다.

신앙의 모범

시간이 지나도 텔마 누님은 여전히 우리 남매들의 버팀목이었다. 우리는 가정의 밤을 하고 교회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내가 집사로 성임받은 지 얼마 안 된 어느 가정의 밤에서, 텔마 누님은 나를 우리 가족의 신권 소유자로 인정해 주었다. 이 일로 나는 신권을 존중하는 것에 관해 소중한 교훈을 배웠다.

누님은 또한 내가 신권회에 참석하거나 책임을 완수하도록 적절히 격려해 주고 충분한 자극을 마련해 주었다. 가령, 텔마 누님은 내가 일요일 아침 신권회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온갖 소음을 비롯해 방법이란 방법은 다 동원해서 나를 깨웠다. 또한, 누님은 아론 신권 안에서 새로운 직분으로 올라가는 것은 고대할 만한 일임을 내게 알려 주었다.

상호 향상 모임과 세미나에 가면 다들 나를 “텔마 동생”으로 불렀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교회의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의 지지를 받는다면, 내게는 감독님과 청남 지도자들, 그리고 텔마 누님이 있었다.

텔마 누님은 선교 사업을 하러 떠날 때까지 여러 부름으로 봉사하면서 항상 나에게 모범을 보여 주었다. 과테말라

내가 어릴 적 텔마 누님은 내가 초등학교와 다른 교회 모임에 참석하도록 북돋워 주었다. 세월이 흘러도 나는 여전히 누님의 모범과 복음에 대한 열정에서 영감을 얻는다.

케트살테낭고 선교부에서 명예롭게 봉사하고 귀환한 누님이 이틀 만에 어머니를 침례받도록 한 것은 누님의 수고에서 나온 결실 중 하나였다. 당시 제사였던 내가 이 거룩한 의식을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뻐했다. 그리고 텔마 누님의 모범을 따라, 나도 진지하게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시작했다.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지만, 누님은 선교 사업을 마친 후 브리검 영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누님은 여전히 나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리고 나도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귀환한 후 BYU에 들어가기 위해 프로보로 갔다. 여러 친절하신 분들이 지원해 주셨기에 나는 그곳에 갈 수 있었고, 그분들께 정말 감사했다. 하지만 여전히 돈은 넉넉지 않았다.

프로보에 도착한 직후 누님과 나는 재정 상황을 따져 보았다. 그리고 내가 시간제 근무를 하더라도 학년 내내 우리 두 사람이 집세를 내기에는 돈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렇지만 누님은 그런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해내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다. 누님은 주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시리라고 믿었다. 한 주가 채 지나지 않아 누님은 BYU 스페인어과에서 편지를 한 통 받았다. 누님은 편지를 읽더니 나를 돌아보며 외쳤다. “됐어! 이거면 네 집세가 해결될 거야!” 편지는 누님을 조교로 받아들인다는 소식을 알리는 내용이었고, 그렇게 되면 누님은 수입이 늘 터였다.

건강과의 싸움

세월이 흘러도 나는 여전히 텔마 누님께 영감을 얻는다. 누님은 내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도 역경에 강하다. 누님은 다운 증후군이 있는 훌륭한 아들과 연로한 어머니, 그리고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남편을 돌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누님 자신도 건강 문제가 있다.

몇 년 전, 텔마 누님은 뇌낭종 때문에 높아진 뇌압을 낮추느라 수술을 받았다. 누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 만큼, 수술이 무사히 끝나야만 했다. 누님은 도움과 영감을 구하며 기도했고 성전에 갔다.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신앙이 흔들려 본 적 없는 누님이지만, 정교한 수술을 앞두고는 의사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것을

불안해했다. 그 무렵 누님은 친한 친구를 찾아가 수술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다. 누님의 친구는 누님에게 의사가 누군지 물었다. 누님이 의사의 이름을 말하자 친구는 그 의사가 자기 와드의 회원인데 충실한 교회 회원이자 합당한 신권 소유자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그는 수술 중에 교회 찬송가를 틀기도 한다고 했다. 사소한 정보였지만 이 말은 텔마 누님의 기도에 대한 친절할 응답이었다. 누님의 삶과 영적인 경험들은 내 삶에도 계속해서 힘과 간증의 원천이 된다.

지금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며 자라는 소년들이 있을 것이다. 집에 모범이 될 만한 남성이 없는 아이들, 오직 교회에서만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아이들, 정치와 치안이 불안정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말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그분의 종들 가까이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내가 목표를 이루고 현재의 내가 되도록 격려해 주시고자 내게 필요한 부분으로 나를 지지해 주셨다. 주님께 정말 감사하다. ■

글쓴이는 미국 뉴욕 주에 산다.



여성들의 신앙과 헌신

“저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에 이르는 충실한 후기 성도 자매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의 힘은 위대하며, 여러분의 헌신과 재능은 놀랍고, 여러분의 신앙과 주님과 그분의 사업과 그분의 아들들과 딸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경이적입니다. 복음대로 계속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 앞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고든 비 힝클리*(2016년, 97쪽).





쿠엔틴 엘 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복음과 훌륭한 삶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가장 힘겨운 상황에서도
가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꼭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꿈과 열정을 좇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목표도 분명
가치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더 큰 목적을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에 대한 감사

먼저 여러분이 받은 축복, 특히 여러분이 받은 유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겸손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는 자기를 알리기가 매우 편리한 수단입니다.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품을 지닌 사람은 구주의 모범을 따르는 가운데 자기가 받은 축복에 감사해합니다.

저의 벗이자 교회의 충실한 회원인 로저 비 포터 하버드대 교수는 2015년 5월
하버드대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감사란,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인정하는 일”이며,
이때 “노력하지 않고서 혹은 공들이지 않고서 얻은 은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종종 수반”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를 삶의
구심점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교만에 굴복하고 특권 의식에 빠지려는 유혹에 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좋은 면을 보고 긍정적인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행로에 놓인 시련과 시시때때로 마주치는 역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는, 나보다 덜 행복한
이들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¹



“물을 마실 때는 물의 근원을 기억하라.”라는 오래된 중국 격언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가 받은 유산에 감사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훌륭한 부모님께 태어난 축복을 받았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이 유산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기도 합니다. “물을 마실 때는 물의 근원을 기억하라”라는 오래된 중국 격언이 있습니다.

경전에도 부모님을 존경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잠언에는 “내 아들이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잠언 6:20) 에베소서에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칩니다.(에베소서 6:2~3; 또한 출애굽기 20:12 참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괴테는 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부친이 물려준 유산은 빌려온 것이니, 그것을 새로이 가져다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²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기 위해 노력하고 소망하신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거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원리 vs. 세상의 철학

저는 감사하는 것 외에 다들 말하는 “훌륭한 삶”, 즉 의미 있는 삶을 누리며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나누고 싶습니다.

영연방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를 지낸 조너선 색스는 최근에 쓴 글에서, 현대의 삶에서 신앙과 도덕적 가치, 그리고 의미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가 고민하는 바와도 맥락이 같습니다. 색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현대 세계의 훌륭한 기관들이 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

우리는 과학, 기술, 자유 시장, 그리고 ... 민주주의 국가 덕분에 지식, 자유, 기대 수명, 풍요 면에서 전례 없는 업적을 달성했다. 인류 문명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에 속하는 이것들은 옹호되고 소중히 간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에서 언젠가는 묻게 될 다음 세 가지 질문에는 답이 되지 않는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결과 21세기는 우리에게 최대한의 선택과 최소한의 의미만 남겨 놓았다.”³

이 인용문에는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말하는 훌륭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에 바탕을 둔 훌륭한 삶보다 우선시되는 이 시대의 풍조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교회 회원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 그리고 속죄는 꼭 필요한 모든 것의 기초일 뿐더러 인생에 의미를 가져다줍니다. 구주께서는 믿음을 고취하셨고, 훌륭한 삶으로 인도하는 도덕적이고 의로우며 바람직한 행동 표준을 확립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주께서 가르치신 원리와 기본적인 도덕성은 오늘날 세상에서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그 자체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가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있을 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맞닥뜨렸습니다.(사도행전 17:18) 스토아학파는 가장 높은 선은 덕이라고 믿었으며, 에피쿠로스학파는 가장 높은 선은 쾌락이라고 믿었습니다. 교만해진 많은 스토아 학자들은 자기들의 철학을 “야망과 죄악을 덮는 외투”로 사용했으며, 많은 에피쿠로스 학자는 “먹고 마시라. 이는 내일 우리가 죽음이라.”를 신조로 삼는 쾌락주의자가 되었습니다.⁴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훌륭한 삶을 위한 청사진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지적 목상을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초기 기독교와 상충하는 이 같은 세속 철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형태만 약간 달라진 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새로 생겨난 여러 종류의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직접 충돌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났습니다. 물론경에 나오는 말을 빌리자면, 이제 대다수 세상 사람이 “여러 해가 못 되는 동안에”(힐라맨서 7:6)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게 되었습니다.(니파이후서 15:20) 실제로, 이 두 성구에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도덕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훌륭한 삶의 토대인 도덕적 행동에서 멀어지는, 믿기 힘든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들어 기독교를 깎아내립니다.⁵ 저는 구주를 따르는 것이 인생과 천국에서 모두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여러분께 장담합니다.

추도사에 쓰일 덕목 vs. 이력서에 쓰일 덕목

선과 악 사이에서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선한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것을 바탕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⁶

데이비드 브룩스는 “The Moral Bucket List[도덕적인 희망 사항]”이라는 사설에서 다음과 같은 개념을 펼쳤습니다. “덕목에는 두 가지가 있다. 즉 이력서에 쓰일 덕목과 추도사에 쓰일 덕목이 그것들이다. 이력서에 쓰일 덕목이 구인 시장에서 내세울 만한 장점이라면, 추도사에 쓰일 덕목은 장례식에서 회자될 내용이다.”⁷ 브룩스는 추도사에 쓰일 덕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올바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세계 큰 영향을 미친 경험을 한 까닭에 이 글이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불과 며칠 간격으로 두 훌륭한 분의 장례식이 거행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이지만, 저는 해당 인물의 이름을 변경했으며 세세한 부분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당시 저는 스탠퍼드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에서 막 일을 시작한 스물다섯 살짜리 풋내기였습니다. 저는 고학력에 막대한 물질적 부를 축적한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다들 친절하며, 전반적으로 품위 있고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교회 회원들은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으나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대다수가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제 오랜 지인 두 분이 연로하여 은퇴한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분의 장례식은 불과 며칠 간격으로 거행되었고, 저는 두 장례식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 분은 리치[Rich, 부자], 다른 한 분은



페이스풀[Faithful, 신실한 자]이라 부르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모든 사람, 특히 젊은이들이 내리는 선택의 중요성을 분명히 깨달은지라 그 두 번의 장례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는 그 후 이력서에 쓰일 덕목과 추도사에 쓰일 덕목 사이의 미묘한 차이도 알게 되었습니다.

리치와 페이스풀은 둘 다 젊은 시절에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아는 이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헌신적인 선교사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학을 마친 후, 그들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리치는 멋진 여성과 결혼했으나,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시들해졌습니다. 페이스풀도 멋진 여성과 결혼했는데, 그녀는 교회에서 매우 활동적으로 지냈습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결정은 이들이 앞으로 결정할 일들의 중요한 틀이 되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부부가 구주께, 그리고 가족의 영원한 중요성에 참되고 충실하다면 거의 항상 추도사에 나올 만한 덕목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리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리치는 불임성이 좋고 사람들을 잘 챙겼습니다. 리치는 이름 있는 미국 기업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그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고 널찍한 땅에 지은 크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리치라는 이름을 붙였듯이,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회사에서 내린 선택은 좋거나 꽤 좋았던 정도가 아니라, 최고였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교회와 관련된 선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선량한 사람이었고 좋지 못한 일에 직접 발을 들여놓는 선택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에 관해 선택을 내릴 때나 자녀에게 영향을 줄 때는 거의 전적으로 교육과 취업, 또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잘 쓰일 만한 이력 쌓기용 덕목에 치중했습니다. 리치의 아들들도 화려한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꾸준히 활동적으로 생활하지는 않았으며, 회원이 아닌 여성들과 결혼했습니다. 아들들의 사정을 제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나, 둘의 결혼은 모두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리치 부부 역시 교회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주로 세간의 이목을 끌 만한 사회 및 지역 활동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은 후기 성도라며 젊은 시절에 선교 사업을 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교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리치는



이따금 교회의 건축 일이며, 직장 문제를 겪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직책을 맡든지 정직하고 성실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리치의 장례식은 묘지 경내의 종파 없는 예배당에서 열렸습니다. 그가 살던 곳의 주지사를 비롯하여 여러 최고 경영자와 저명인사가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자녀와 손주들, 그리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50대를 넘긴 이들이었습니다. 대체로 우울한 장례식이었습니다. 행복의 계획에 관한 기본 원리는 가르쳐지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리치는 오로지 이력서에 쓰일 덕목을 바탕으로 살다 갔습니다.

페이스풀이 직업에 관해 내린 결정은 리치의 그것에 비하면 다소 초라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소규모 자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화재가 일어나 갖은 노력이 수포가 되었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어서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으나 납부금만 간신히 낼 정도로 수입은 변변찮았습니다. 그는 평범하고 아담한 집에 살았습니다. 즐겁게 일하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사업은 순조로웠고 썩 만족스러웠지만, 누구나 알아줄 만한 성공을 거둔 것도, 최고라고 여길 만한 결과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력서에 쓰일 만한 덕목들로 이루어진 경력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그는 가족과 교회와 관련해서는 단연코 최고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와 아내는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보통은 교사로 봉사했던 페이스풀은 어떤 부름도 마다치 않았고, 자주 성전에 갔으며, 충실하게 신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특히 여러 아들딸 및 손주들과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끈끈한 정을 나눴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 모두 교육을 잘 받았지만,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아들을 잃는 등 시련도

교육과 직업에 관한 목표를 가족과 교회 및 구주에 대한 간증보다 더 중시한다면, 이력 쌓기용 덕목에 치중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겨나 심각한 역효과를 볼지도 모릅니다.



재능, 능력, 기회,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장 중요한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겪었으나, 가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목적과 의미를 찾으며 기쁘고 흡족하게 생애를 보냈습니다.

와드 집회소에서 거행된 페이스폴의 장례식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쁨을 나눴습니다. 여러 손주와, 그가 돌보고 봉사했던 젊은이들은 물론 다양한 연령의 조문객이 함께했습니다. 장례식에서는 행복의 계획이 전해졌으며, 장례식의 초점은 구주였습니다. 그야말로 본보기가 된 후기 성도 장례식이었습니다. 추도사에서는 그의 성품, 친절함, 타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사랑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선택과 훌륭한 삶

저는 앞서 제가 결정적인 시기에 이 두 장례식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귀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차에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이생에서 어떤 행복을 누릴지가 정해지고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지가 결정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제 앞에 다가올 선택의 영원한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그러한 선택은 영원히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사람의 삶에 관한 이야기에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재능, 능력, 기회,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장 중요한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자신과 미래의 자녀, 그리고 제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긴요한 일은 구주와 가족, 그리고 교회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라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가장 힘겨운 상황에서도 가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꼭 필요합니다. 물론경에서 리하이가 광야를 떠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의

집과 그의 기업의 땅과 그의 금과 그의 은과 그의 귀한 것들을 버려두고, 그의 가족 ...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니다.(니파이전서 2:4)

이 세대는 신앙과 가족을 수호할 과업이 있습니다. 한 연구원은 고대 인도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 역사상 종교를 가지지 않은 민족은 모두 인구 통계학적인 면에서 쇠퇴를 겪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⁸ 최근에 뉴스 매체들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The World's New Population Time Bomb: Too Few People[세계의 새로운 인구 시한폭탄: 인구 감소]"이라는 기사를 1면에 실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2016년에는 "노동 인구 총수가 1950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할 것"입니다.⁹

신앙이 약해지는 것과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분명히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계획은 신앙과 가족에 달려 있습니다. 후기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있으며, 꾸준히 결혼하여 자녀를 얻고 있다는 수차례의 설문조사 결과에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출산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와 그분의 계명을 의롭게 따르고, 자신을 잊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은 "약속된 모든 축복을 영원의 세계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¹⁰

사람은 삶에서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며, 벌어지는 많은 일을 거의 또는 전혀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원칙과 행동, 종교 활동과 의로운 삶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발휘하고 그분들을 예배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님은 18세기 영국에 살았던 윌리엄 로라는 성직자의 말을 인용하며 단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택하지 않았다면, 그 대신 무엇을 선택했든지 그것은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¹¹

리치와 페이스풀이라 칭한 이들의 실화로써 교육이나 직업 관련 목표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달리, 우리는 이 두 분야에서 더 나은 결과를 맛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교육과 직업에 관한

목표를 가족과 교회 및 구주에 대한 간증보다 더 중시한다면, 이력 쌓기용 덕목에 치중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겨나 심각한 역효과를 볼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갈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 여러분이 받은 축복, 특히 유산에 감사하십시오.
- 인생에 의미를 가져다줄 영원한 원리에 전념하십시오.
- 추도사에 쓰일 만한 덕목을 이력서에 쓰일 만한 덕목보다 중시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구주께 보고할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휘장 저편에서 우리가 모두 만날 가장 중요한 이는 "문을 지키시는 이"이신 구주이십니다.(니파이후서 9:41) 조상이 누구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는 주어진 계명에 얼마나 잘 순종했는지를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합니다.(시편 100:4)

그리하여 우리는 참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기쁘게 보고하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

2015년 12월 18일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 영적 모임에서 전한 말씀, "Good Life[훌륭한 삶]에서 발췌함. 영어로 된 전문은 web.byui.edu/devotionalsandspeeches에서 볼 수 있다.

주

1. Roger B. Porter, commencement address, Dunster House, Harvard University, May 28, 2015.
2. Johann Wolfgang von Goethe, *Faust*, trans. Bayard Taylor (1912), 1:28.
3. Jonathan Sacks, "How to Defeat Religious Violence," *Wall Street Journal*, Oct. 2, 2015, C2; 또한 Jonathan Sacks, *Not in God's Name: Confronting Religious Violence* (2015), 13 참조.
4. Frederic W. Farrar, *The Life and Work of St. Paul* (1895), 304 참조.
5. Carl Cederstrom, "The Dangers of Happiness," *New York Times*, July 18, 2015, 8 참조.
6. 앨런 에이치 옥스,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04~108쪽 참조.
7. David Brooks, "Moral Bucket List," *New York Times*, Apr. 11, 2015, SR1, nytimes.com; 또한 David Brooks, *The Road to Character* (2015), xi 참조.
8. Michael Blume, in David Brooks, "Peace within the Texts," *New York Times*, Nov. 17, 2015, A23, nytimes.com 참조.
9. Greg Ip, "The World's New Population Time Bomb: Too Few People," *Wall Street Journal*, Nov. 24, 2015, 1.
10.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10), 1.3.3.
11. 닐 에이 맥스웰, "부름에 대한 대답," *성도의 빛*, 1974년 11월호, 45쪽; 또한 William Law, *The Quotable Lewis*, ed. Wayne Martindale and Jerry Root (1989), 172 참조.





신앙의 초상

1989년, 마르쿠스와 캐런, 그리고 세 살 난 그들의 딸은 허가를 받아 고향인 동독을 떠나 휴일 동안 헝가리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들이 헝가리에 머무는 동안, 헝가리가 국경을 오스트리아에 개방하여 수천 명의 동독 망명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 마르쿠스와 캐런은 이것이 그들 앞에 찾아온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들도 동독을 떠날 수 있는 것이다.

레슬리 닐슨, 사진 작가

마르쿠스 텔그너

독일 안할트 작센 주

저는 “오스트리아로 떠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캐런은 대답했죠. “안 돼요. 당신 부모님과 제 부모님 모두 독일에 남아 계시잖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분들은 이해하실 거요.”

캐런이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 집도 짓기 시작한 걸요. 공사를 마쳐야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서독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다시 새로 집을 지읍시다.”

다시 우리가 동독을 떠나야 한다고 아내를 설득하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은 얼마 전에 감독으로 부름받았고, 당신은 그 부름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봉사하겠다고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동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그 때 집을 떠나지 않고 남았던 것이 참 다행이었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었습니다.

텔그너 가족의 더 많은 사진을 보려면 ids.org/go/31739를 방문한다.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신앙의 초상 기사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방문 교육, 가족 역사, 그리고 어머니

나는 스무 살 때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 뒤 같은 와드에 다니던 사람과 결혼했고 그 후 직장 문제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스물두 살 때 첫 아이를 얻었다. 그때 우리 집은 와드 경계 끝에 있었지만, 방문 교사들은 거르지 않고 나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엄마로서의 역할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을 때라 어머니께 할 말이 참 많았고 언제나 어머니 생각이 났지만, 8년 전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와는

연락이 끊긴 터였다. 방문 교사들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나눴고, 그러면 나는 어머니와의 관계 개선이 어렵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권고하는 영을 느꼈다.

어머니는 교회의 회원이 아니셨기 때문에 나는 방문 교사와 함께 어떻게 하면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상의했다. 어머니와 떨어진 지난 8년 동안 내 삶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강하게 느껴지는 영의 속삭임에 따라, 나는 우선 외할머니께 연락을 드리기로 했다. 외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시는 터라 편지는 외할머니를 돌보시던 이모가 대신 받아보셨다.

반가운 답장이 왔고, 우리는

외할머니와 이모를 찾아뵙고 잠시 머물기 위해 집을 나섰다. 외할머니는 우리의 방문에 기뻐하셨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꼭 어머니를 만나라고 당부하셨다. 외할머니는 정말 행복해하셨다.

루터교에 다니시는 외할머니는 구주를 사랑하셨다.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남편은 아침마다 외할머니께 몰몬경을 읽어 드렸고, 외할머니는 그 시간을 아주 즐거워하셨다. 며칠이 지난 아침, 남편과 몰몬경을 읽던 중에 아주 큰 영을 느끼신 할머니는 책상으로 가시더니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족보를 꺼내서 남편에게 보여 주셨다. 족보에는 8대가 정갈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조상들의 직업까지 하나하나 나와 있었다. 우리가 머무르는 동안 외할머니는 매우 행복해하셨고, 나는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를 만나겠다고 약속드렸으며, 그 약속을 지켰다.

집으로 돌아온 지 5주쯤 지나, 외할머니는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2년 뒤, 나는 할머니가 주신 족보와 정보를 토대로 조상들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의식을 받았다.

요즘 나는 어머니와 아주 가까이 지내고 있다. 어머니는 우리 동네에 사시면서 아이들을 돌봐 주기도 하신다.

지금껏 나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며 꼬박꼬박 들러 준 방문 교사들이 아니었더라면 어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쌓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을 일이다. 덕분에 나만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함께 축복을 받았다.

하이크 바크, 독일 프랑크푸르트



나는 어머니와의 관계 개선이 어렵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권고하는 영을 느꼈다.

방문 교사가 찾아오던 날

나는 젊을 적에 두 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브라질의 산타카타리나에 잠시 살았었다. 그곳에는 아는 회원이 거의 없었다. 당시 나는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외곽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는 이웃도 드물었다.

몸이 좀 안 좋은가 싶더니 급격히 탈수 증세를 느끼던 어느 날이었다. 조금 있으니 일어서기조차 힘들어 아이를 돌볼 수도, 거리로 나가서 가까운 공중전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 수도 없을 지경이 되었다. 기도를 시작했지만 일어나려고 할수록 점점 더 힘이 빠졌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방문 교사 자매님들이 문을 두드리셨다. 자매님들은 금세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로 나를 찾으셨음을 깨달으셨다. 그분들은 약을 준비해 주시고 아이를 돌봐 주셨으며 설거지도 해 주셨다. 자매님들은 우리 집을 찾느라 한참을 걷다가 그만 돌아가야겠다 싶으셨는데, 그때 포기하지 말라는 영의 인도와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자매님들이 떠나실 무렵, 나는 이미 한결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자매님들이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는 함께 기도했다.

본인들은 미처 다 모르시겠지만 그분들은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을 주셨고, 친절한 모범과 더불어 신속히 영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범으로써 나를 영적으로 채워 주셨다.

이날지도 호시오 페헤이라 다 실바, 브라질 쿠리치바



그런데 조금 있으니 방문 교사 자매님들이 문을 두드리셨다. 자매님들은 금세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로 나를 찾으셨음을 깨달으셨다.

낮선 이의 미소

어느 때라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 남자는 동네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놀이 공간에 놓인 식탁에서 후줄근한 차림새로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은 슬픔이 가득했지만 미소는 참 부드러웠다. “추위를 피해 들어온 모양이야.”라고 생각하며, 딸아이가 먹다 남긴 음식을 버리러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지나가며 그가 앉은 자리의 식탁을 보니 거기에는 음식 포장지도 종이컵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에게 음식을 사 주어야 해.”

나는 일단 자리로 돌아왔다. 주머니에는 현금이 조금 남아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음식을 사 주면 당황스러워 하지 않을까?” 그러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다시금 “그에게 음식을 사 주어야 해.”라는 감미로운 영의 속삭임이 들렸다.

아이들에게는 내가 무얼 하려는지 말하지 않았다. 동석한 친구가 알아채지 못하게 남자가 앉은 자리로 다가가기 위해 식탁 위에 있던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려고 일어섰다.

그리고 가는 길에 몸을 기울여 남자에게 물었다. “제가 점심을 좀 사 드려도 될까요?”

그는 놀란 듯했지만 부드러운 소리로 답했다. “괜찮으시다면요.”

큰돈은 아니었지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남자에게 주었다. 딱 한

끼 식사와 음료를 살 만한 금액이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서 부산스러운 엄마들 틈에 앉아, 남자가 일어나 음식을 사러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집에 가려고 아이들을 차에 태우면서 밖에서 식당 안을 보니 그는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굳어 있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얼굴에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차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온몸이 얼 듯한 추위였지만, 나는 따뜻하고 즐거운 영을 느끼며 마냥 행복했다. 구주의 가르침이 생각났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태복음 25:35, 37,40)

옳은 일을 할 용기가 나게 한 낯선 이의 미소에 감사하다.

제너 포터, 미국 텍사스 주



미르타 자매님이 돌아오도록

새로 이사한 와드에서 내가 받은 부름은 상호부조회 보좌였다. 회장단 모임을 할 때면, 우리는 와드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어떻게 하면 자매님들과 그 가족들을 도울 수 있을지 방법을 궁리하곤 했다.

그러다 내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와드의 미르타라는 자매님이었다. 미르타 자매님은 오래전에 교회의 회원이 되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여러 해 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었다.

알고 보니 자매님의 남편은 장로 정원회 회장이었지만, 회원인 자녀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상태였다. 자매님의 남편은 매주 일요일 혼자서 교회에 왔다. 나는 이 가족이 함께 교회로 돌아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회장단 모임에서 미르타 자매님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돕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우리는 특별한 방식으로 자매님이 참여하게끔 활동을 계획했고 자매님께 맡길 임무도 몇 가지 정해 두었다.

우리가 방문하자 자매님은 모든 임무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들을 모두 완벽하게 해냈다. 활동 모임이 있어서 우리 중 하나가 자매님을 데리러 가면 자매님은 항상 기쁜 얼굴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단에서 방문 교육 동반자를 정하던 날, 나는 다른 자매님들께 미르타 자매님과 내가 동반자가 되면 어떻게

“그에게 음식을 사 주어야 해.”라고 들려오는 감미로운 영의 속삭임에 걱정은 가라앉았다.

의견을 여쭙었다. 그렇게 미르타 자매님과 나는 매달 어김없이 방문 교육을 갔다. 자매님들을 방문하러 갈 때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더 깊이 알아 갈 수 있었다.

그런데 교회에만 초대하면, 자매님은 “준비가 됐다고 느끼면 갈게요.”라며 거리를 두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자매님의 결정을 존중했다. 마침내 자매님은 “일요일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대답을 들려주었다.

나는 일요일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자매님을 기다렸다. 하지만 자매님은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았고, 나는 계속 자매님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다 우리가 갑자기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나는 미르타 자매님께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우리가 와드에 작별 인사를 하던 날도 자매님은 교회에 오지 않았다.

그러나 몇 달 후, 미르타 자매님이 교회로 돌아와서 상호부조회 보좌로 부름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여러분의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는지 결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누군가의 삶이 축복받을 것입니다.”(“교회의 여성들에게”,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115쪽)

흔히 우리는 기대와 다른 결과를 보기도 하고, 간절히 바라지만 당장 결과를 보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력을 멈추지 말자. 이 일은 주님의 사업이며 우리는 많은 사람의 삶이 변화하도록 그분께서 선택하신 도구이니 말이다. ■

라켈 엘리자베스 페드라자 데 브로시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폰 지 키치 장로
칠십인 정원회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매우 위태로운 임무를 띠고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간 소규모 부대가 있었습니다. 부대가 목표물에 다가가자 적군은 그 낯새를 알아챘습니다. 곧 훨씬 더 우세한 병력이 부대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적군에 포위당한 채 순식간에 총알받이 신세가 된 부대의 일원들은 바위 위에 올라서서 자신들을 독려하던 지휘관을 쳐다보았습니다.

지휘관은 병사들을 보며 외쳤습니다. “제군들, 적군이 제대로 걸려들었다. 이제 아무 방향으로나 발사해도 적을 맞힐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려운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진리를 가르치고 수호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진리에 맞서려는 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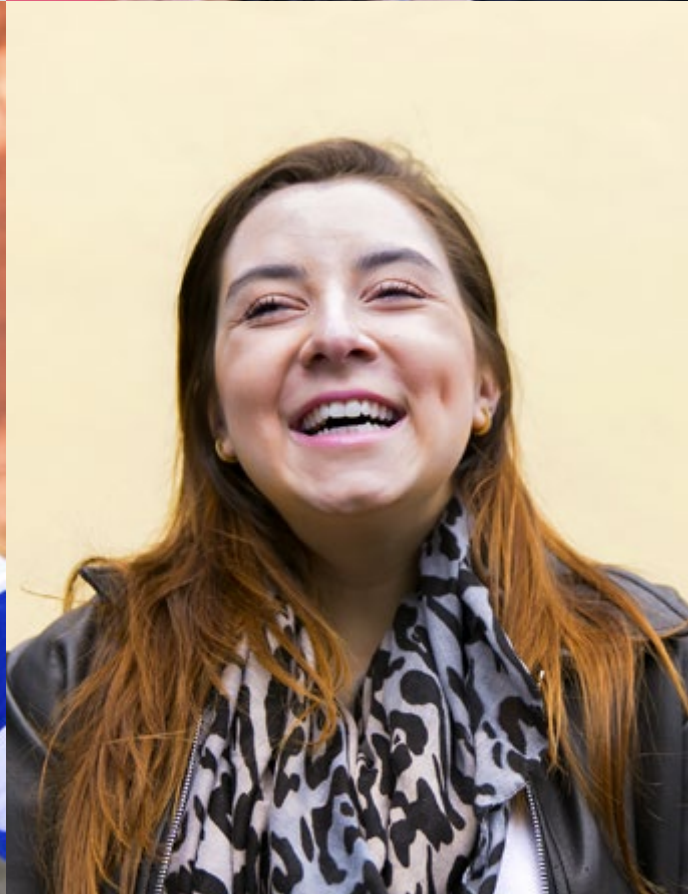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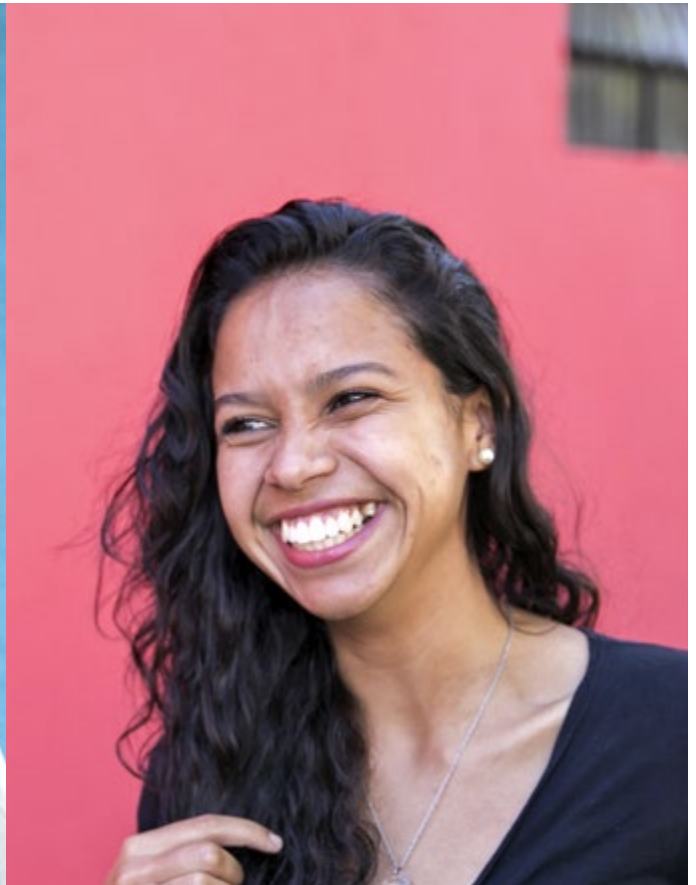
의견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응대할지 알기조차 힘든 갖가지 견해에 집중포화를 맞기도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한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디모데전서 4:12) 또한, 그리스도처럼 존중, 공감, 사랑의 본보기가 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고 수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적이 있다 싶으면 아무 곳이나 쏘아 대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믿는 바를 진지하게 지켜 나가는 것이란 무엇인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종 정말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다음 두 가지 원리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워야 하고(에베소서 6:12),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모사이야서 18:9),

**사랑과 친절,
이해심을 보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리를 가르치고
수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로마서 1:16) 그렇지만 우리는 논쟁을 피하고 절대 “노여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해서는 안 되며(제3니파이 11:30),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데 그치지 않고(로마서 12:18) “화평의 일[을] 힘쓰”는 데(로마서 14:19)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임무, 즉 논쟁을 일으키거나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굳건히 지키고 다른 이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오늘날에는 논쟁이 될 만한 문제를 다루다 보면 무슨 말을 하든지 순식간에 갈등과 분쟁으로 번지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세상은 새로운 유행과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인내심을 보여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험과 맞닥뜨릴 때면 우리는 다음 둘 중 한 가지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대화가 바로 불편해지거나 격앙될 만한 상황에는 발을 들이지 않기로 마음먹고 토론을 피하든지, 흥미진진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깨달음보다는 분노를 일으키는 논쟁을 벌이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생각하며 연구하고(교리와 성약 9:8 참조) 하늘의 인도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편이 낫습니다. 용기를 내서 여러분 내면의 빛을 활용하십시오.

이제, 모든 이를 사랑하고 공감해 주면서도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수호하려면 반드시 고려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수호한다

첫째,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쌓을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자극적인 한 줄 표현이 난무하고 서로에 대한 우월성을 나타내 보이려는 분위기가 팽배한 오늘날의 양극화 문화에서는

다수가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소모적인 토론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특히 단적인 예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민감한 사회 문제에 대해 견해를 드러낼 때는 그 견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태도와 정신을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제한된 글자 수 안에서 생각을 써내야 하기 때문에 종종 오해가 벌어집니다. 대개 일대일로 만나서 얼굴을 마주하고 개개인이 서로를 이해할 때 훨씬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토마스 몬슨 회장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 구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야말로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구주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펼치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다가가 영향을 미치신 방식 또한 대부분 이와

같이 개개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물론 사람들이 바로 빛을 알아보고 다음 날 선교사를 만나겠다고 하면 더없이 기쁜 일이겠지만, 처음부터 그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타인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그 사람의 시각을 이해하는 것, 즉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토론 속에 빈번하게 오가는 비난과 오해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로 다른 견해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방법을 찾아봅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으려면, 단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다원화 사회에서 무언가 근본적이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기본 시민권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생각을 말하고 믿음을 밝힐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그들의 기본 시민권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대부분 단번에 일어나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이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도 우리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편견과 증오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 견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본래 선하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바라봅시다.

구주처럼 행동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구주께서 하셨을 법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는 말은 그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복음 원리를 실천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 원리가 우리가 나누는 대화, 타인을 향한 사랑, 우리가 전하는 영,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신앙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디모데전서 4:12 참조)

결국,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만 한다면,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과 진리를 수호하는 이 위대한 두 복음 원리는 서로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강하게 확신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거나 불쾌하게 행동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수호하려면,

- 사람들과 일대일로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한다.
-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 만인의 시민권을 지킨다.
- 다른 사람이 선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긴다.
- 사랑, 친절, 이해심을 보인다.

동시에, 모든 이에게 친절하고 모든 이를 사랑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원리는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즉, 동전의 한 면은 하나님의 교리를 설명하고 굳게 지킬 의무이며, 또 다른 면은 존중과 사랑을 보이며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할 의무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그들의 믿음에 대해 관용과 존중심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향한 결심과 우리가 맺은 성약을 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다른 믿음이나 견해에,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 관용과 존중심을 보이면서 우리의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

이 영감에 찬 경고는 절대적 진리를 믿는 사람이 어떤 행동에 대해 관용을

보이는 것이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점을 떠올리게 합니다. 관용 또는 존중이 동전의 한 면이라면, 다른 한 면에는 항상 진리가 있습니다.”¹

사방에서 공격이 쏟아지는 가운데 급속도로 편이 갈리고 다툼이 잦아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의무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생활 속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리를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를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 이해심을 보이는 한편 그 교리를 가장 확고하게 가르치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알게 하실 것이며, 이로써 여러분은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정하고 관대하면서도 굳건하게 교리를 수호하고 알리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

2016년 6월 14일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 영적 모임에서 전한 “An Example of the believers[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에서 발췌함. 영어로 된 전문은 web.byui.edu/devotionalsandspeeches에서 볼 수 있다.

주

1. 델린 에이치 옥스, “진리와 관용 사이에 균형 맞추기”, 리야호나, 2013년 2월호, 32쪽.

남아프리카에서 맛본 세상

맥케나 존슨

화 창한 토요일, Neighborgoods Market(남아프리카 전통 시장)에 날이 밝는다. 다채로운 양산으로 장식한 입구를 지나 라이브로 연주되는 음악을 들으며 걷다 보면 이런 날 잘 어울릴 먹거리가 보인다. 바로 남아프리카의 전통 요리이다. 소스, 굴, 채소, 향신료 주머니, 테린 등 포키키 숯에서 나온 것들은 하나같이 입맛을 당긴다.(테린: 차게 식힌 고기 파이의 일종 - 역자 주)

여기는 요하네스버그다.

로스 음파이(28세)는 요하네스버그가 “아주 따뜻하고 정감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마천루를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던 방문객들은 “요버그”의 활력 넘치는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한다. “거리에 사자가 어슬렁거릴 것으로 생각하신 건 아니죠?” 로스가 우스갯소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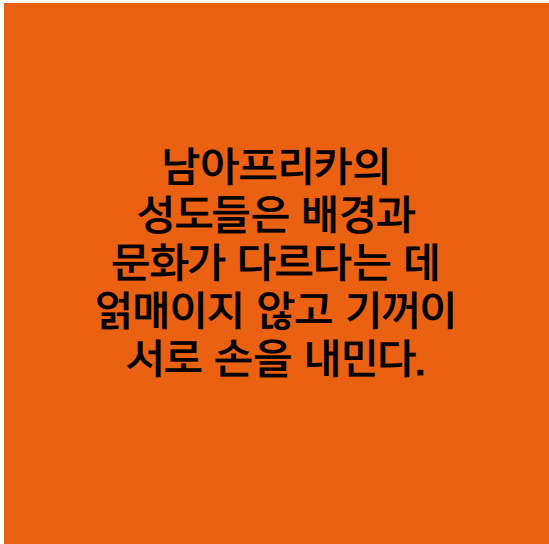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는 학생이자 이혼 후 다섯 살 난 아들 네이트를 키우는 엄마인 로스는 제작 지원 분석가이다. 대담한 식성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들이는 노력에 이르기까지, 로스는 생활 곳곳에서 대담하고 따뜻하며 충실한 면모를 보이는 사람이다.

요하네스버그의 성도들은 교회

회원들끼리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 안다. 이를테면 로스의 친구인 투미의 집이 물에 잠기자, 교회에서 찾아온 많은 친구들이 힘을 모아 물을 퍼내고 투미의 가족을 위로해 준 일도 있었다. 로스는 말한다. “그 일로 회원이 아니던 투미의 어머니가 마음을 여셨어요. 선교사를 만나기 시작하시더니 회원이 되셨고, 이제 상호부조회 교사이시죠.” 남아프리카 회원들은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기는 덕에 이처럼 따뜻하게 사람들을 보살피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우리는 내 일 남 일을 가리지 않아요.” 로스의 말이다.

로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런 공감의 모범이심을 알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요. 그분은 지금 제가 젊은이로서 어려움을 겪으며 어떤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지를 아시고 이해하셔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그런 것들을 이겨 낼 수 있게 도와주시지요.”

로스가 구주와 맺은 관계는 직장 동료와의 상호 작용에서부터 개인적인 공부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삶에 영향을 끼친다. 로스는 말한다. “근무 환경이 적대적일 수도 있어요. 험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직한 결정을



**남아프리카의
성도들은 배경과
문화가 다르다는 데
얼매이지 않고 기꺼이
서로 손을 내민다.**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다들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제 삶에 복음 원리와 선지자의 가르침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경전 공부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항상 영과 함께하는 일이 수월해져요. 유혹을 느낄 때면,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이 제가 누구이며 무엇을 지키는지를 일깨워 주지요. 덕분에 저는 표준을 충실히 지킬 수 있어요.”

Neighborgoods Market에서는 요하네스버그의 범세계적인 정신이 엿보인다. 그런데 로스에게는 그보다 더 심오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있다. 바로 영생을 약속하는 복음 진리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로스에 대하여

요하네스버그의 문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조상을 잊지 않아요. 몰몬들도 그렇죠.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가족 역사를 하고 조상들을 위해 침례를 받아요. 그 점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아주 훌륭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남아프리카 요리 중 한 가지를 든다면?

새우 마살라입니다. 저는 매콤한 음식을 좋아해요. 카레 소스로 맛을 낸 이 새우 요리는 바스마티 쌀로 지은 밥과 아주 잘 어울리지요.

남아프리카의 교회

회원 62,600명
 와드와 지부 108개
 가족 역사 센터 7개
 선교부 3개
 성전 1곳(그 외 건축을 앞둔 성전 1곳)

사실

공식 국가명: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 프리토리아, 케이프타운, 블룸폰테인

통계

인구 5,180만 명
 해안선 길이 2,500km
 공식 언어 11개



회개에 대해 우리가 두려워하는 7 가지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종종 회개는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교회 잡지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로마서 3:23 참조) 진정한 기쁨을 찾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의 권능을 통해 회개해야 한다는 것도 안다.(엘마서 36:24 참조) 또한 회개를 미루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엘마서 34:32~34 참조)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회개를 미룬다. 왜 그럴까?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중 한 가지는 두려움이다. 감독님께 고백할 필요가 있는 심각한 죄를 지었든, 또는 주님의 복음과 그 표준에 따라 온전히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사소한 습관, 태도, 또는

행동에 빠져 있든, 두려움은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을 수 있다.

여기, 회개를 미루게 만들 수 있는 일곱 가지 두려움을 소개한다. 또한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들을 용기를 내어 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제언과 가르침도 함께 소개한다.



1. 부끄럽고 창피할 것이라는 두려움

내가 한 일을 감독님께 말하면 감독님은 많이 실망하실 거야. 그분 앞에서 너무 창피하겠지. 부모님께도 말씀드려야 한다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면 어떡하지?

창피함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은 일들이 있다. 해결되지 않은 죄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과 성신의 동반을 잃게 되는 일 등이 그런 것들이다. 여러분이 감독님께 고백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부끄러운 감정은 잠시일 것이며, 그런 감정은 이후에 얻게 되는 안도와 기쁨으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감독에게 고백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감독님은]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그분은 친절하게 이해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런 후 여러분이 회개의 과정을 밟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감독님은 주님께서 보내신 자비의 사자로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깨끗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시 스코트 그로우 장로, 질십년 정원희, “감독님께 무엇을, 왜 고백해야 하나까?”, *리아호나*, 2013년 10월호, 59쪽.

2. 회개 이후 직면하게 될 일들에 대한 두려움

내 죄를 감독님께 말씀드리면 그에 따른 결과에 직면해야 하겠지. 성찬을 취하지 못하고, 성찬 축복이나 전달에서도 빠져야 하며, 내가 가려는 시기에 선교 사업을 못 갈지도 몰라. 그러면 내 삶은 엉망이 되고 말 거야.

회개 이후에 찾아오는 긍정적인 결과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결과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한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복음이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죄책감은 ‘씻기워’질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고, 죄사함을 받으며, ‘양심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망감과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데일 지 켈랜드 장로, 십이서도 정원희, “회개: 기쁨을 주는 선택”,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124쪽.

“죄를 지었다면 속이 회개할수록 의로운 길로 돌아오는 노력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고, 용서와 함께 찾아오는 화평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 2011년), 28쪽.

3. 회개에 필요한 노력에 대한 두려움

회개하면서 달라져야 하는데, 그런 변화는 너무 힘들어 보여.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릴 거야.

무엇이든 가치 있는 일을 이루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용서, 평안,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중 하나이다.

“회개는 변화하고자 분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안 하면서 구주께서 우리를 천사와 같은 존재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껌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분의 고통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진정 부지런히 노력을 쏟은 다음에 그 수고를 보완하고 보상에 주시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니파이후서 25:23 참조) 자비를 구하려 하는 만큼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며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시간과 기회를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회개는 신성한 은사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40쪽.



5. 자신의 개성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교회의 표준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순응한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TV 프로그램, 음악, 그리고 나를 표현해 주는 여러 방식들과 같이 나를 진정한 나로 만들어 주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 거야. 그건 과자를 찍어 내듯이 천편일률적인 또 하나의 물몬을 만들어 낼 뿐이지. 나는 그냥 나로 남는 게 좋겠어.

회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 그 영을 통해, 여러분은 더 깊고, 더 참되며, 더 훌륭한 자신만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정체성은 취향, 기호, 습관, 유별난 점 등으로 대변되는, 모래로 만들어진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 주는 굳건한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다.

“사탄은 여러분의 신성한 잠재력 대신 여러분이 지은 죄와 잘못으로 여러분을 규정하기를 바랍니다. ...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다이어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네 가지 명칭”,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58쪽.

“거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개성과 특성을 보입니다.

반대로, 죄는 동일성을 불러옵니다. 죄로 인한 중독적인 욕구와 불순종적인 충동으로 우리는 움츠러들게 되고 갇히게 됩니다.”

Elder Neal A. Maxwell (1926-2004) of the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Repentance,” *Ensign*, Nov. 1991, 30.



4. 자신의 평판과 이미지를 망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저는 “착한 아이”죠. 제가 저지른 실수를 인정한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저는 “착한 아이”가 아니게 될 거예요. 저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까요? 제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제가 저지른 실수를 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지은 죄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시도록 말이다.(이더서 12:27) 여러분이 얻고자 노력해야 하는 이미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서 보시는 이미지, 즉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 무한하고 신성한 잠재력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미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과 본질을 보시며, 그러기에 우리를 구할 기사가 있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

제자의 길에서 우리가 내딛는 신앙의 결음마다, 우리는 우리가 성취하도록 계획되었던 영원한 영광과 무한한 기쁨의 존재로 성장합니다.”

다이어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그분은 여러분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데려오실 것입니다”,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104쪽.

6.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

변하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지만 항상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 이제는 남은 기회도 없는 것 같아. 어쩌면 변화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 한 번 더 시도해서 또 실패한다면, 결국 나는 변하지 못한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셈이 아닐까?

회개는 쉽지 않다. 그렇게 계획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으로 향하는 길이기, 우리는 그 길 위에 머물러야 한다. 진실한 회개에는 제한이 없다.(모사이야서 26:30 참조)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을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 희생물로 내어 주셨으므로, 신앙을 가지고 회개할

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엘마서 34:9~16 참조) 여러분은 제대로 이해했는가?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라는 말 말이다. 여러분이 그분의 속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머무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은 경계가 없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속 노력하라.

“때때로 우리는 회개하고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면서도 동일한 문제로 힘겨워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무로 뒤덮인 산을 오를 때처럼 우리는 정상에 올라 높은 산등성이에서 내려다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발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을

쏟고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개하여 ... 내기 너희를 고지게 하라”, *라이프나*, 2009년 11월호, 41쪽.

“우리를 돕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사와 하늘의 관능으로,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참 좋은 점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성공하지는 못한다 해도 말입니다.”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이프나*, 2016년 5월호, 125~126쪽.

7. 성공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럼 나에게 기대되고 요구되는 것들이 훨씬 많아질 텐데.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게 되지 않도록 결함이 있고 평범한 상태로 살아가는 게 더 나을지 몰라.

더 높은 기대치와 더 많은 책임에 대한 두려움은 아마도 게으름과 불안함에서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개선과 발전의 계획이다. 여러분은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 계획을 받아들였으며, 현재 신앙을 가지고 부지런히 생활함으로써 그 계획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실지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를 실제로 보게 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그것을 믿기조차 힘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의 도움을 통해,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책임은 평범한 사람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실패로부터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의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토머스 에스 몬슨 회장, “마음속의 의자”, *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74쪽.



의사가 지시한 대로



회개는
— 처방이지, —
처벌이
— 아니다. —

살렛 라카발

교회 잡지

나는 병원에 가는 것이 싫다. 특유의 복잡함과 번거로움, 기다리는 시간, 주사, “편안하게 힘 빼세요.”라는 말이 싫다. 어렸을 때는 간호사와 의사들이 주사 놓기를 좋아하는 나쁜 사람들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성장해 가면서 나는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저 도움을 주려 했던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거의 언제나 병원에 갔다 오면 금방 편안해지고 몸이 나왔다. 진료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지루하든, 주사를 맞는 것이 얼마나 아프든, 또는 돌아다니지 말고 쉬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얼마나 실망스럽든, 결국에는 언제나 병원에 가는 일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때로 회개는 병원에 가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

기쁨 혹은 고통?

여러분은 혹시 먹기 힘든 약이나 뾰족한 주사 바늘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구를 들을 때 마음이 움츠러들지는 않는가? “영원한 괴로움으로 고통을 당하였나니”, “지옥의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였느니라”,

“쓰디쓴 단즙에 빠져 있고.”(엘마서 36:12~18 참조) 이것은 엘마가 자신이 회개를 시작했을 때를 묘사한 문구들이다.

천사가 엘마와 모사이아의 아들들에게 나타난 후, 엘마는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기억했으며, 자신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너무도 참담한 나머지 “영혼과 육신이 모두 없어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기까지 했다.(엘마서 36:15) 그런 고통스러움에 비하면 병원에서 맞는 주사는 어린 아기의 뽀뽀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왜 엘마는 “취지 않고 수고[하여]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려 했던 것일까?(엘마서 36:24) 왜 것처럼 고통스러웠던 일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기 바랐을까?

아마도 그 고통스러움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때문일 것이다.

그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다.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였느니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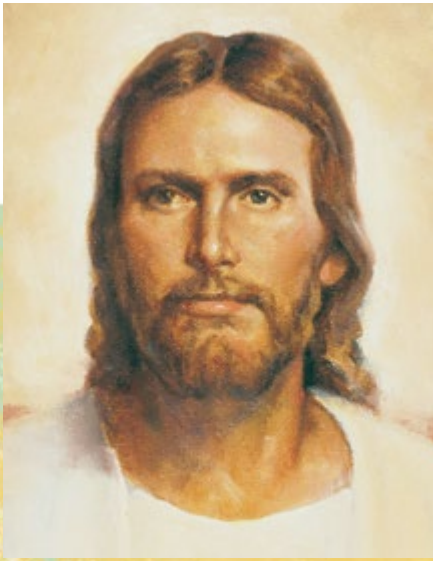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이 생각을

하였을 때, 내가 더 이상 내 고통을 기억할 수 없었노니, 참으로 나는 더 이상 내 죄의 기억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오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기이한 빛을 내가 보았던고! 참으로 내 영혼은 내 고통만큼이나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찼느니라!”(엘마서 36:18~20; 강조체 추가) 우리의 죄를 직면하는 일은 힘들고 괴롭기까지 하지만, 엘마는 그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기쁨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가 느꼈던 기쁨은 전에 느껴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훌륭하고 감미로운 것이었다.(엘마서 36:21 참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만약 사람들이 회개를 생각할 때 움츠러든다면, 그것은 그들이 회개의 고통스러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종종 회개는 시간을 요하며, 때로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데 큰 겸손과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스코트(1928~2015) 장로님이 가르쳤듯이, “회개는 형벌이 [아니다.] 회개는 더



영광스러운 미래로 이어지는 희망 가득한 길이다.¹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회개라는 달콤한 축복”이란 표현을 사용하셨다.² 다시 말해서, 우리는 회개의 어느 한 부분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얼마나 어렵든 간에, 구주의 속죄를 통해 오는 그분의 치유 권능은 우리 곁에서 우리가 회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울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부끄러움과 슬픔은 그 이후에 오는 기쁨으로 완전히 삼켜지고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혹시 *Primum non nocere*라는 말을 아는가? 여러분의 의사는 아마도 그 말을 알 것이다. *Primum non nocere*라는 말은 라틴어로, “무엇보다도, 해를 입히지 말라”라는 뜻이다.(의료인의 윤리적 지침인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일부—역자 주) 이것은 모든 의료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지도 원리이자

그들이 의사로서 맺는 약속이다. 하지만 이 말은 앞으로 환자가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보다는, 의료진이 하는 모든 처치와 처방은 언제나 환자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와 비슷한 약속을 하신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그분들은 그렇게 약속하신다. 다음 성구들을 살펴보자. 이사야 1:18; 이사야 41:13; 로마서 8:28; 제3니파이 13:14.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읽어 보기를 바란다. 아주 많은 성구 중에서 몇 개만 선별한 것이니 말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사람은 때로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완전하시므로, 그분들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나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약을 처방하신다면, 그것은 회개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리라는 것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이다. 회개는 형벌이 아니다. 그것은 치유이며, 약함을 넘어선 승리이고,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는

일이자,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죄에서 돌아서는 일이다.

칠십인 정원회의 외르크 클레빈가트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회개를, 위대한 의사이신 구주의 명에 따라 매일 기꺼이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회개를 여러분의 생활 양식으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행복하고도 즐겁게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십시오.”³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라는 약을 처방하셨을 때,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으로 투약을 망설이지 않기를 바란다. 잠시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분께서 큰 자비로 여러분을 모으실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라.(제3니파이 22:7 참조) 엘마와 같이, 여러분은 그 고통만큼이나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엘마서 36:19~20 참조) ■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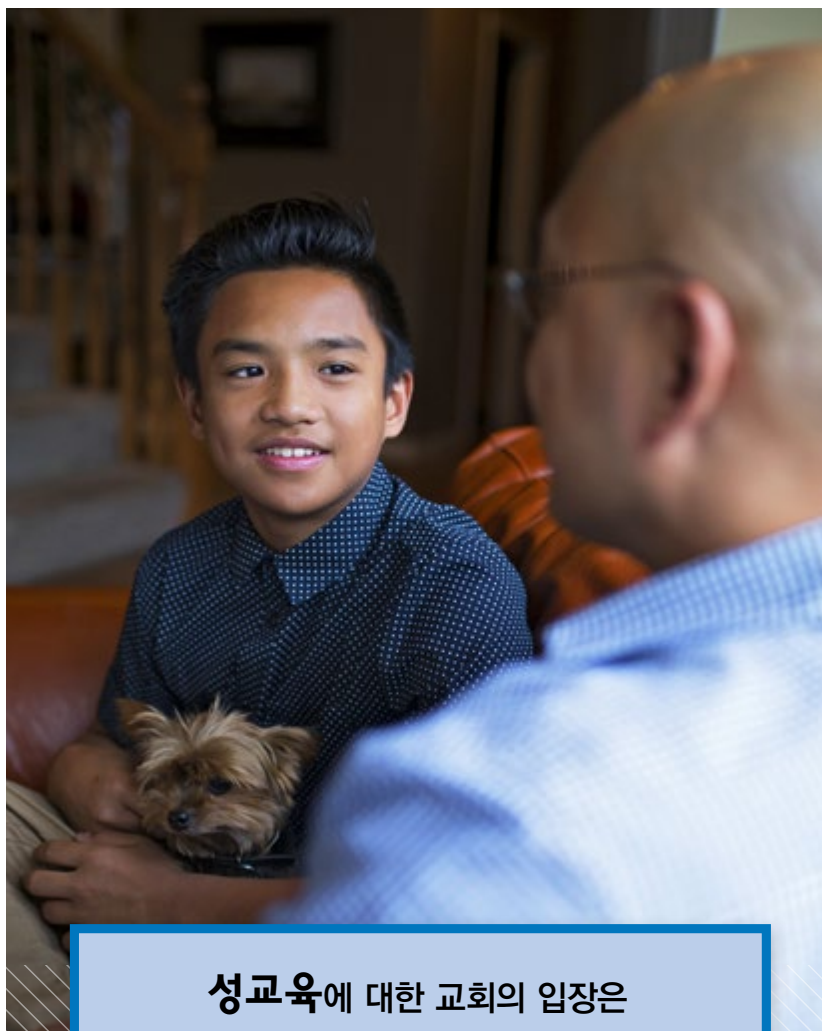
1. 리차드 지 스코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개인적으로 얻는 힘”,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84쪽.
2. 러셀 엠 넬슨, “회개와 개심”,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04쪽; 강조체 추가.
3. 외르크 클레빈가트,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갑시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36쪽.

해답을 찾아서

하늘 어머니에
대해서는 왜 별로 알려진
것이 없나요?

우 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모두 계시다는 것을 안다. 이 지식은 조셉 스미스를 통해 처음 주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후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지도자들의 영감에 찬 가르침에 의해 반복적으로 확증되어 왔다. 그러나 하늘 어머니가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 자녀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하늘 부모가 함께 일한다는 지식 이외에는 하늘 어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진 바는 아직 없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그분들은 우리가 그분들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 지식은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성별이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의 일부이고 남성과 여성이 따로 혼자서만 승영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 사실들은 그 자체로 진귀하고 소중한 진리들이다. ■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다면 topics.lds.org에서 "하늘 어머니"를 찾아본다.



성교육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교 회 지도자들은 여러분이 성에 대해 주로 부모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책임의 일부로, 부모는 자녀들이 심각한 범법을 피할 수 있도록 성관계에 대해 가정에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교회에는 관련 자료도 마련되어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성교육과 관련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부모에게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아보고, 그 교육 내용이 훌륭한 도덕적 및 윤리적 가치에 부합되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작은 신앙으로 받은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에 경험한 일 덕분에 나는 신앙을 행동으로 옮길 때 나오는 “좋은 열매”를 볼 수 있었다.

이사야아스 바르가스 차바리아

내가 봉사하던 스테이크에서 선교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을 때였다. 동반자와 나는 그 모임에 참석하는 구도자들에게 간단히 복음 원리를 설명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막상 집회소에 도착해 보니 구도자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계획한 대로 복음 원리를 가르치는 대신, 거리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활동 모임에 초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 봤자 아무 소용 없을 거야.”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모임에 초대한다면 아무도 오지 않을 텐데 헛수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순종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초대해 보려고 노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여자가 딸과 딸의 남자친구를 데리고 지나갔다. 우리는 이들에게 우리 모임에 오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았다. 일행은 처음에는 다소 망설였으나 결국 초대를 받아들이고 회원들이 모여 있는 집회소 안으로 들어갔다. 의외였지만 정말 행복했다.

모임은 복음을 주제로 한 음악 공연으로 시작되어 한 시간 이상 이어졌다. 모임이 너무 늦게 끝나서 우리가 초대할 사람들이 화가 났을까 봐 걱정되었지만, 나는 모든 일이 잘되게 해 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풍성한 축복

모임이 끝나자, 나는 시간을 너무 많이 뺏아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려고 일행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주 아름다웠어요. 고맙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고마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말이다. 정말 놀랍고 기뻐다. (내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했던 것이 생각나서 더욱 그랬다.) 여자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했고 일요일 모임에도 참석하고 싶어 했다.

나는 이 일로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웠다. 설사 믿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신앙이라도, 신앙을 행사한다면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이다.(말사서 32:27~28 참조)

이 일을 계기로 나는 태도를 달리하게 되었고, 선교 사업을 마칠 때까지 그것은 변함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선교사 활동이 있을 때마다 소망과 신앙의 눈으로 나아갔고, 그러면 노력한 결실을 볼 수 있었다.

가능성 없는 일이라고 생각될 때라도 신앙을 행사하면 훌륭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

글쓴이는 멕시코 케레로에 산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찾으라

“여러분은 여러분을 ‘영접하는 자들을’(교리와 성약 42:8) 찾으므로써 교회를 세워야 한다. ...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진리에서 멀어져’(교리와 성약 123:12) 있는 사람들이다.

대개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들은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즉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들은 이 생의 더 큰 평안과 인도와 목적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회복된 복음을 통해 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들은 회복된 복음을 찾게 될 때까지는 그것을 찾고 있다는 사실조차 종종 깨닫지 못한다. 예를 들면, 한 개종자는 이렇게 말했다.

‘복음에 대해 들었을 때, 그것은 내 마음에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던 구멍을 메워 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던 탐구를 끝마쳤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156쪽.

우리들 공간



내 가족에게 찾아온 역경 앞에서

실비아 시 움브리아, 이탈리아

부 모님이 이혼하신 후로 내 삶은 많이 힘들었다. 교회에 가면 보통은 마음이 편안했는데, 가족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아프기도 했다. 내겐 그런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저활동 회원이었고,

재혼하셨다. 아빠는 무신론자였고, 다른 여성과 함께 사셨다. 두 분 모두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낳으셨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이 마치 집이 된 것 같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잘못 태어난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명상하기 시작했고, 교회에도 나가려고 노력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다. 성전에서 인봉된 가족이 없는 나는 다음 생에서 무얼 해야 하나?

해답이 즉각 온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답은 주어졌다. 나는 주제 목록에서 가족의 정의를 찾아보고 관련 성구들을 읽다가, 현 상황의 밝고 긍정적인 면을 보기 시작했다. 나에겐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는 대신,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인내심을 보이는 법을 배웠고, 나 스스로 빛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더

나은 내가 되려고 노력도 했다. 또한 나는 깨닫게 되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큰 가정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처럼 신앙을 갖지 못했을 것이며 순결의 법과 구원의 계획을 지금처럼 이해하고 있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말이다.

나는 그렇게 나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 새로운 거대한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다.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다음 세상에서 내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내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 그분은 왜 우리가 인봉되지 않았는지를 아실 것이다. 내가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아신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신앙을 갖는 것, 그리고 만사가 결국 그분 안에서 제자리를 찾을 것임을 알게 해주시리라는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

아빠를 위한 생신 기도

쿠퍼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빠는 자라면서 종교를 가져 본 적이 없으셨고, 엄마의 가족은 교회를 다녔으나 엄마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는 삶에서 무언가가 빠져 있다고 느끼셨고, 다시 엄마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하셨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였다. 나와 여동생도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녔다. 그러나 아빠는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을 싫어하셨고, 그로 인해 부모님의 관계는 전에 없이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나는 여덟 살이 되었을 때 침례를 받았고, 가족이 어떻게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 매년 내 생일이 되면 나는 아빠가 침례받게 되면 좋겠다는 소원을 남몰래 마음속으로 빌면서 촛불을 켜다. 그리고 아빠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기도했다. 몇 년이 지난 후, 마침내 선교사들이 우리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다. 하지만 복음에 관한 얘기는 한 번도 꺼내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여름에 아빠가 청남

캠프에 나와 함께 참여하신 적이 있다. 교회 회원이 아니었지만, 아빠는 노년의 모임 준비를 맡으셨다! 나는 무척이나 걱정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노년의 모임에 참여하면서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내 친구가 기도에 대해 간증을 나누었다. 그 친구는 캠프에 어린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아빠가 그 어린 동생을 도와준 이야기를 하며, 아빠가 자기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고 간증했다. 처음으로 나는 아빠가 우는 모습을 보았다. 아빠는 영을 느꼈던 것이다.

그 캠프 활동 후, 아빠는 열정적으로 복음에 대해 더 배우고자 하셨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아빠는 침례를 받겠다고 말씀하셨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빠가 침례받은 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중 하나였다. 예배당은 아빠의 침례를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고, 나는 너무 긴장되고 흥분된 나머지 침례 기도문을 수백 번도 넘게 연습했다. 그렇게 나는 아빠에게 침례를 주었다. 침례탕에서 아빠와 껴안았을 때 느꼈던 그 벽차오르는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듬해에 우리 가족은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다. 인봉이 끝난 뒤 우리는 영원한 가족으로서 둥글게 서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이든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배웠다.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나는 내 미래의 가족과 성전에서 인봉되기에 합당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게 되었던 일화나 경험을 나눠 주세요. 여러분의 글을 400자가 넘지 않게 작성한 뒤 제목을 "우리들 공간"으로 하여 4월 10일까지 liahona@lds.org에서 제출하거나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신화: 앨리스 맨윌

희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있든, 복음을 통해서
“[희망]의 완전한 밝은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니파이후서 31:20 참조)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신앙의 시험을 이겨 내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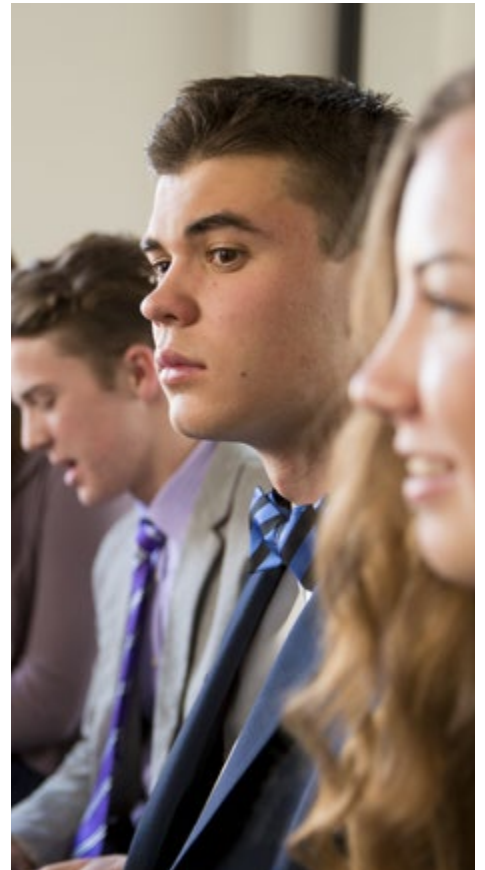
시련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려고 계획되었지만, [극심한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상실하게 하고 그분과 맺은 약속을 지키려는 여러분의 결의를 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련은 대개 식별하기 어렵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결점이나 취약점, 감성 혹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현실적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다른 사람에게는 극심한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확고부동하게”(엘마서 1:25) 남을 수 있을까요? 신앙의 중심을 세우게 해 준 바로 그 일에 몰두하면 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기도하고, 경전을 상고하며, 회개하고, 교회에 참석해서 성찬을 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련에 직면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시련을 겪는 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어지는 것은 토네이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안전한 지하 대피소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에베소서 2:19) 우리는 교회라는 안식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킵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으며, 음악으로 경배하고, 구주에 대한 간증을 나누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주님의 영을 느낍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하고, 신권 축복을 받으며, 성전에 참석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교리와 성약 84:20) 신앙의 시련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권속을 위한 피난처에 안전하게 머무르십시오. 여기에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큰 시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모사이야서 18:8~10 참조) ■

2012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기적

시저 에이치 보니토 두아르테

나는 열여섯 살 때 전기 분야에서 준학사 학위를 따기 위해 기술 전문 고등학교에 다녔다. 학위를 따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나는 그 지역의 회사에서 30일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내 기술을 인정받아야 했다.

나는 종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은 소망이 커지던 때였고, 그곳에서 계속 일을 하면 선교 사업을 나갈 충분한 돈도 모을 수 있었다. 인턴으로 근무하던 사람은 나를 포함해 셋이었는데, 회사에서는 그중 한 명만 정규직으로 뽑게 되어 있었다.

그 회사에는 고장 난 기계가 하나 있었다. 그 기계가 잘 작동했었을 때는 그와 비슷한 기계 세 대 분의 작업량을 수행했다고 한다. 그 기계가 작동을

멈춘 지는 꽤 오래되었다. 회사에서는 교체 부품을 해외에서 주문하여 수리를 시도했으나 여전히 그 기계는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내가 그 기계를 고쳐 보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몇 날 며칠을 그 기계에 매달렸다. 하지만 그 기계는 생각보다 복잡했고, 나 같은 초보자가 30일 안에 그 기계의 문제점을 찾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매일 아침 근무 시간 전에 나는 *리아호나* 잡지에 실린 기사들을 읽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내가 일하는 부서의 부장님은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전기 기술자셨는데, 나는 부장님과 친해지게 되었고, 그분은 회사에 요청하여 내가 그 기계의 설계도를 주말 동안 집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나는 설계도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인턴 기간이 끝나 가면서 내 두 동료들이 자기네가 맡은 프로젝트를 마치는 바람에 나는 더 압박감을 느꼈다. 주변에서 나에게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심지어는 험담을 하기도 했지만),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새 인턴 기간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 되었다. 나는 그 기계에서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긴 했지만, 그 기계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 하면 고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기에, 나는 부장님께 토요일에 일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월요일에는 기계가 움직이게 해 놓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말에 부장님은 꽤나 놀란 눈치였다. 부장님은 회사 사장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물으셨다. 그런 뒤 부장님은 토요일에 정오까지만 일할 수 있는데, 나와 부장님과 사장님, 이렇게

나는 어렸고, 미숙했으며, 시간도 많지 않았다.
단순한 기도가 정말 기적을 불러올 수 있을까?

셋이 함께 출근해서 일할 거라고 알려 주셨다. “그렇게 셋이서요?” 내가 물었다. 부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사장님도 전기 기술자이신데, 그 기계를 고치려고 수도 없이 시도했지만 실패해서 포기하고 있던 참이라 내 제안에 관심을 보이셨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나는 두 분의 상사를 모시고 일해야 했기에 많이 위축되고 겁이 났다. 나는 어리고 미숙한 초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분은 내 보조가 되어 일하겠다고 하셨고, 나는 그 상황이 많이 불편하긴 했지만 동시에 기분이 좋기도 했다.

어느덧 시간은 정오를 몇 분 남겨 두고 있었다. 사장님과 부장님은 노력이 허사였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에서 나는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느껴졌다. 나는 선교 사업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니 그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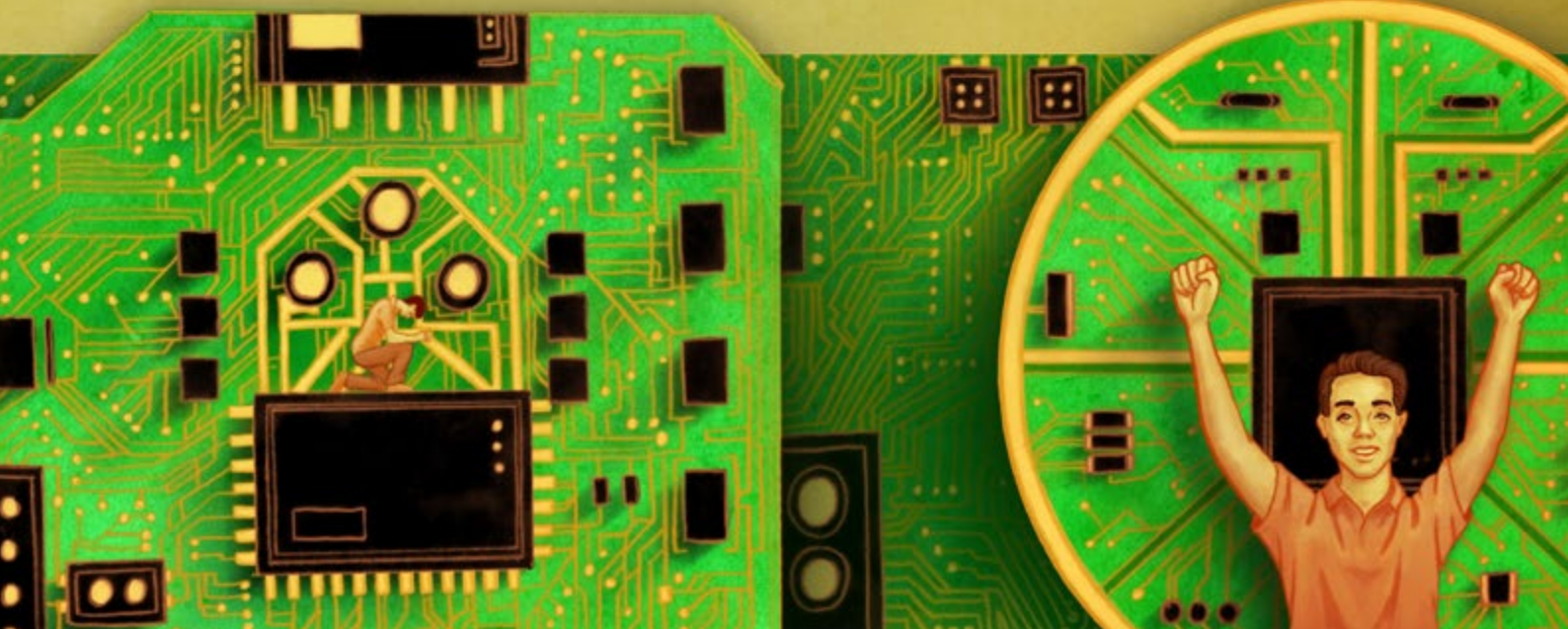
나는 흥분된 마음으로 힘차게 화장실에서 걸어 나왔다. 그런데 내 두 분의 보조들이 이미 기계 회로 부분을 닫고 연장과 도구를 치워 버린 것이 아닌가. 나는 침착하게 다시 회로를 열고 열다섯 개의 회로 카드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때 4,000개에 달하는 시스템 핀들 중 한 개가 카드에 연결되지 않은 것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다. 그 핀을 연결하고, 다시 제자리에 넣은 뒤, 기계의 전원을 켰다.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기적이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부장님은 나를 껴안아

주셨고, 사장님도 신이 나서 악수를 청하시며 축하해 주셨다.

결국 나는 그 회사에서 2년 가까이 일할 수 있었고, 필요한 선교사 기금을 모았으며, 오래 기다리던 선교 사업을 떠날 수 있었다. 내가 회사를 떠나는 이유를 설명하자, 사장님께서서는 흔쾌히 작별 인사를 건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선교 사업이란 것을 마치고 돌아오면 일자리 걱정은 하지 말고 꼭 다시 돌아오게. 선교 사업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길 빌겠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기적은 신앙의 시련을 겪은 뒤에야 찾아온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말이다. 그렇다. 기적은 분명 있다. ■
글쓴이는 베네수엘라 아라과에 산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 지금 침례받지 못하는 거죠?

제시카 라슨
실화에 근거함

“예수께서 하셨듯이 침례받는 것 ...
그것이 내가 바라는 일.”(Children’s
Songbook, 104)

“**오** 늘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오 배울 거예요.” 리드 자매님이
말씀하셨다. “침례”라는 노래죠. 모두
눈을 감고 노래를 들어 보세요.”

나는 눈을 감고 편안히 의자에
기대 앉았다. 반주자가 노래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그 선율은
마치 물이 흐르듯이 부드럽고
아름다웠다. 리드 자매님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다. “예수님 오래
전 침례 요한에게 오셔서 요단
강에서 침수로써 침례받으셨다네.”

내 뺨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엄마가 내 눈물을 볼까 봐
얼른 눈물을 훔치려 했지만, 이미 늦어
버렸다. 엄마는 초등학교 회장님이셨고,
항상 작은 것도 금방 알아차리셨다.
엄마는 나를 보며 약간 슬픈
눈빛으로 웃고 계셨다. 내가 왜
우는지 엄마는 알고 계셨다.

교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동생 줄리는
그 노래를 계속 흥얼거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나랑 색칠공부 할래?” 집에
도착하자 줄리가 내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중에.
지금은 먼저 할 일이 있거든.”

거실에는 아빠가 계셨다. 아빠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무릎에 책을 펴 놓고 계셨다. 아빠는

엄마랑 줄리랑 내가 교회에 가 있는 동안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였다.

나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아빠?” 내가 말했다. “저 침례받아도 돼요?”

아빠는 책을 덮으시고는 옆에 나를 앉히셨다.

“새디, 이 얘기는 이미 전에 끝냈잖나. 아직은 안 돼.” 아빠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받고 싶은걸요!” 내가 말했다. “몇 달 전에 여덟 살도 됐고, 침례에 대해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저는 교회가 참되다고 생각해요. 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점점 더 침례를 받고 싶어요.”

아빠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생각에는 아직 네가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나이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건 알지?”

“그건 알아요.” 내가 말했다. 아빠가 나를 생각해서 그러신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다. 그저 아빠는 내가 그런 선택을 내릴 나이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거다.

나는 방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침례를 받고 싶어요. 아빠가 다 이해하게 해 주세요.”

기도가 끝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계속 무릎을 꿇고 기다렸다. 오늘 배웠던 “침례”라는 노래 멜로디가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러자 마음이 그렇게 슬프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이 편안해졌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비록 내가 아직은 침례받을 수 없다고 해도 말이다.

나는 계속 기도하고 초등학교에 참석할 수 있다. 동생 줄리에게 모범이 되고, 다음 주 금식 주에 엄마에게 나를 위해 금식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저녁을 먹으러 내려왔을 때도 그 평안한 마음은 계속되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나는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날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아홉 살 생일 이틀 전, 새디의 아빠는 새디가 침례를 받도록 허락해 주었다. ■

글쓴이는 미국 텍사스 주에 산다.



만일 침례받기 위해 기다려야만 한다면

- 복음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배운다.
- 침례식에 참석하고 여러분이 침례받게 될 날을 고대한다.
-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신권 축복을 받고 싶다고 말한다.
-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기에,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나아지고 싶어 하는 사람과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인정을 받아요.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구주께서는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계속 걸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계속 사랑하세요. 계속 노력하세요. 계속 신뢰하세요. 계속 믿고, 계속 성장하세요. 하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여러분을 응원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124~127쪽에서 발췌함.





어떨 때는 가족들 때문에 짜증이 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가족들을 친절히 대하게 도와 달라고 간구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을 안아 주세요.
노아 에프, 10세, 호주 퀸즐랜드



줄리아: 가족들과 함께 좋았던 때를 떠올리려고 노력하세요. 좋았던 때를 생각하고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브루나: 가족들이 사과하지 않아도 저는 그냥 용서해요.
줄리아 및 브루나 알, 13세 및 8세, 브라질 상파울루



제 동생이 짜증나게 할 때, 저는 동생 침대를 정리해 주고 맛있는 것을 사 줘요. 또 카드를 만들어 주고, 집안일도 하며, 기도를 하죠. 그러면 성신은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요.
아델라인, 9세, 미국 테네시 주



저는 기도하고, 가정의 밤을 하면서 가족들과 대화하겠어요.
루이사 알, 9세,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줄리아: 저는 가족들에게 친절할 수 있어요. 짜증이 날 때면, 저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더 잘해 줘요. 그렇게 구주를 따를 수 있고, 사랑을 보일 수 있어요.



다린: 그냥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세요.
줄리아 및 다린 에스, 8세 및 6세, 미국 뉴멕시코 주

다음 질문

.....
“저에게는 형(오빠)이 있는데, 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7년 4월 15일까지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진을 보내주세요. Liahona.lds.org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이메일 제목에 “Question Corner”라고 써 주세요.) 부모님의 허가서도 같이 보내야 한답니다.

제시된 의견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그리다



질 해킹, 미국 뉴욕 주

더 튼튼해지기

루시는 근육을 잘 쓸 수 없는 병을 안고 태어났어요. 음식을 삼키거나 말을 하는 것도 힘들었죠. 루시는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 특수하게 고안된 자전거를 타거나 가족과 함께 하이킹을 다녀요.

그림

루시의 어머니는 화가세요. 루시가 아기였을 때, 루시는 엄마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걸 좋아했대요. 이제 루시는 어머니에게 그림을 배우고 있어요. 루시는 여러 가지 색이 합쳐졌을 때 나오는 오묘한 색감을 좋아해요. 루시는 굉장히 섬세하게 그림을 그린답니다. 언젠가 루시는 엄마와 함께 화실을 여는 것이 꿈이에요.

루시가 그린 마음

루시와 언니는 학교 미술 경연 대회에 참가했어요. 주제는 “더 좋은 세상 만들기”였죠. 루시는 마음을 그리고 싶었어요. 루시는 말해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시예요!

저는 가족과 함께 미국 유타
주에 살아요. 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해요.



사랑하는 언니

루시가 그린 그림이 경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 루시는 언니 루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그림도 너무 예뻐. 나 대신 언니가 상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루시의 그림이 나중에 전미 대회에서도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루시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특별한 방법

루시는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루시는 사람들이 사랑과 행복을 느끼도록 돕고 싶었죠. 루시는 그림을 통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루시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마음속에 사랑을 지니세요.
사랑이 있으면 행복해져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세요.

마음을 보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여러분이 그린 마음을 이야기와 사진과 함께 보내 주세요. 부모님의 동의서도 함께요. liahona.lds.org에서 제출하거나(“작품 제출”을 클릭하세요)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특별한 느낌

파울로는 실수를 하고 망쳐 버렸다.
이제 어떻게 하면 중단 말인가?

제인 맥브라이드
실화에 근거함

파울로는 물 밖으로 나와서 아빠와 함께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런 뒤 아빠와 할아버지와 감독님께서 파울로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확인을 해 주셨다.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파울로가 말했다. 그는 손을 가슴에 대었다. “여기가요.”

엄마는 파울로를 꼭 껴안아 주었다. “그건 네가 확인을 받으면서 성신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란다.”

파울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그 좋은 느낌을 사라지게 만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동생 카를로가 파울로의 장난감 비행기를 망가뜨리고 말았다. 그 비행기는 파울로가 한 달 내내 돈을 모아서 샀던 거였다.

“무슨 짓을 한 거야!” 파울로가 소리쳤다. “그냥 내 물건엔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겠나?”

“미안해.” 카를로가 말했다. 카를로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고친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똑같겠어!”

카를로는 울면서 방을 뛰쳐나갔다.

파울로는 마음이 갑자기 불편해졌다. 예수님이셨다면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을 거다. 파울로가 침례를 받고 느꼈던 그 느낌을 이제 다시는 느낄 수 없는 걸까?

파울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말했다. “저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겠다고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벌써 망쳐 버린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뭔가 잘못을 했나 보구나.” 엄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잘못해서 다 망쳐 버린 것 같을 때도 있지.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럴 때에도 우리가 다시 성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단다.”

파울로는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실지 알고 있었다. “알아요. 회개 말이죠? 맞아요. 용서를 구해야겠죠.”

엄마가 끄덕이셨다. “그런 뒤 네가 성찬을 취할 때 너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맺은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침례와 확인을 받았을 때처럼 다시 깨끗해지는 거란다.”

파울로는 카를로를 찾아갔다. “소리 질러서 미안해. 같이 한번 고쳐 보자.”

카를로는 형을 보며 웃었고, 파울로는 자신이 예수님께서 하셨을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날 밤에 기도할 때, 파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고 카를로에게 더 친절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했다. 마음속에 고요한 평안이 느껴졌다.

그 주 일요일에, 파울로는 교회에서 성찬 기도문에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였다. 한마디 한마디를 집중해서 들었다. 그리고 빵과 물을 취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 말씀이 옳았다. 파울로는 그 특별한 느낌을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콜로라도 주에 산다.

- 새 비행기의 날개는 깨끗하고 반짝이죠. 날개 위아래로 흐르는 공기는 비행기가 떴 있게 해 줍니다.

- 그러다 날개에 얼음이 생기고 눈이 달라붙으면, 날개 주변의 공기가 부드럽게 흐르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비행기가 안전하게 날지 못할 수도 있어요.

-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사람들은 큰 호스로 날개에 물을 뿌려서 날개가 다시 깨끗해지게 하고 반짝이게 해요.

- 그러면 비행기는 마치 새것처럼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날개가 항상 반짝이게 하세요!

-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성신의 은사를 받죠.
-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성신을 느끼기가 어렵게 돼요.
- 그렇지만 회개하고 기도로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는 사하여지고 성신은 우리와 함께할 수 있어요.
- 구주의 속죄가 있기에, 우리는 매일 회개할 수 있어요! 일요일에 취하는 성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며,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해 줍니다.



김 비 클라크 장로
칠십인 정원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았을 때



제가 열한 살이었을 때, 저희 와드는 회원들이 사용할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짓게 되었고, 저는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원들이 건축 과정을 도왔습니다. 못을 박고, 벽에 페인트칠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죠.

그 건물을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님이 헌납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꼭 그 헌납식에 가고 싶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허락해 주셨고요. 저는 일찍 가서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맥케이 회장님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계신 모습,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던 것, 사람들을 대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분은 백발에 푸른 빛의 눈동자를 지닌 신사였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선지자 같았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헌납 기도를 들었을 때,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가슴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1951년부터 1970년까지 교회의 제9대 회장으로 봉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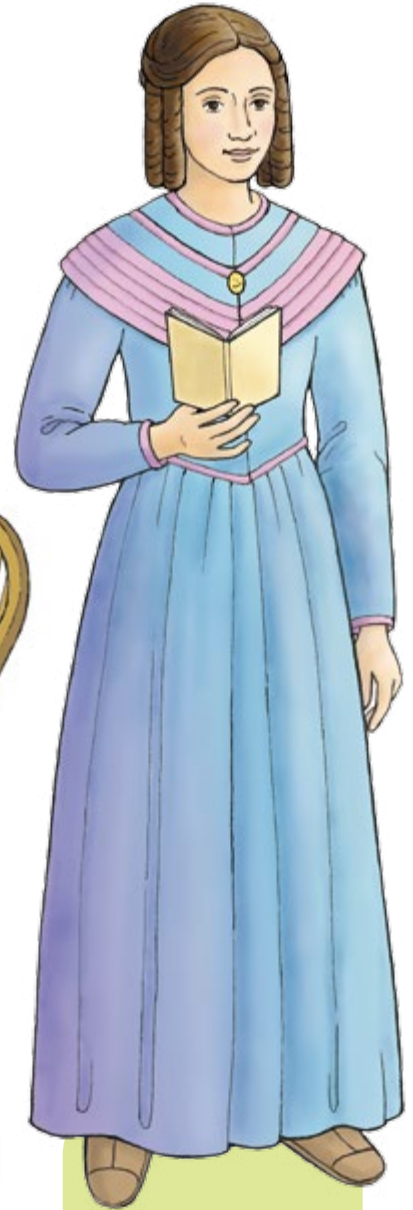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영적인 증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분께서 “이는 내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신을 통해 맥케이 회장님이 그분의 선지자임을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맥케이 회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되자, 저는 교회가 참되며 조셉 스미스도 선지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몬경이 참되고 복음의 회복 역시 참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셉 스미스 이래로 데이비드 오 맥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는 내 선지자니라”라는, 그때와 똑같은 확증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

교회가 조직되었어요

이 인물들을 활용하여 교회사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에머 스미스



물문경이 번역된 후, 그 책은 하나의 경전으로서 출판되었다. 한 달 뒤, 한 농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첫 번째 공식 모임이 열렸다. 약 60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지상에 다시 조직된 것이었다! 몇 달 뒤, 주님께서서는 조셉 스미스의 아내였던 에머 스미스에게 성도들이 교회 모임에서 부를 찬송가를 선정하라고 말씀하셨다.

liahona.lds.org에서 더 많은 교회사의 인물들을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의 침례

김 웹 리드, 미국 유타 주



침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쳤고 그런 뒤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어요.

침례 요한이 요단 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침례 요한에게
당신을 침례하라고 명하셨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침례받기를
원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모든 계명에 순종함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계명이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한 후, 성신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분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셨습니다.(마태복음 3:17)



우리도 예수님처럼 계명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할 수 있어요.
그런 뒤 우리는 확인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될 거예요. ■

저는 몸이 있어서 감사해요





데이비드 오 맥케이
(1873~1970)
제9대 교회 회장

덴디가 준 교훈

일부 젊은이들이 그렇듯, 제 말 덴디도 구속받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저는 한때 덴디라는 멋진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녀석을 훈련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맑고 둥근 눈의 덴디는 타고난 기질이 좋은데다 몸의 균형도 대체로 잘 잡힌 훌륭한 말이었습니다. 덴디는 사람을 등에 태울 때면 어느 말처럼 순하고 고분고분했으며 사람을 잘 따랐습니다. 제 반려견 스코티와도 아주 잘 지냈습니다. 저는 덴디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덴디는 제 말을 따르면 다치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구속당하는 것은 몹시 싫어했습니다. 녀석은 줄에 매인 것이 얼마나 싫었던지 줄이 끊어지도록 줄을 갉아먹어 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달아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자유롭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들도 자기와 같을 것으로 생각했는지 다른 말들의 줄을 갉아 주는 일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풀밭에 갇힌 것을 싫어해서 울타리에서 매끄러운 철사로만 이어진 곳을 발견하면 그 부분을 발로 살살 밟아 늘어뜨린 뒤 자유의 땅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웃들은 친절하게도 덴디를 다시 목장으로 돌려



보내 주었습니다. 덴디는 심지어 문 여는 법도 터득했습니다. 문이 망가지면 화도 나고 수리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저는 덴디의 명석한 두뇌와 재주가 기특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목장 밖으로 나가 보겠다는 덴디의 호기심과 열망 때문에 덴디와 저는 곤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덴디는 고속도로까지 나갔다가 차에 치인 일도 있었는데, 결국 차는 파손되고 덴디도 다쳤으며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운전자도 부상을 면치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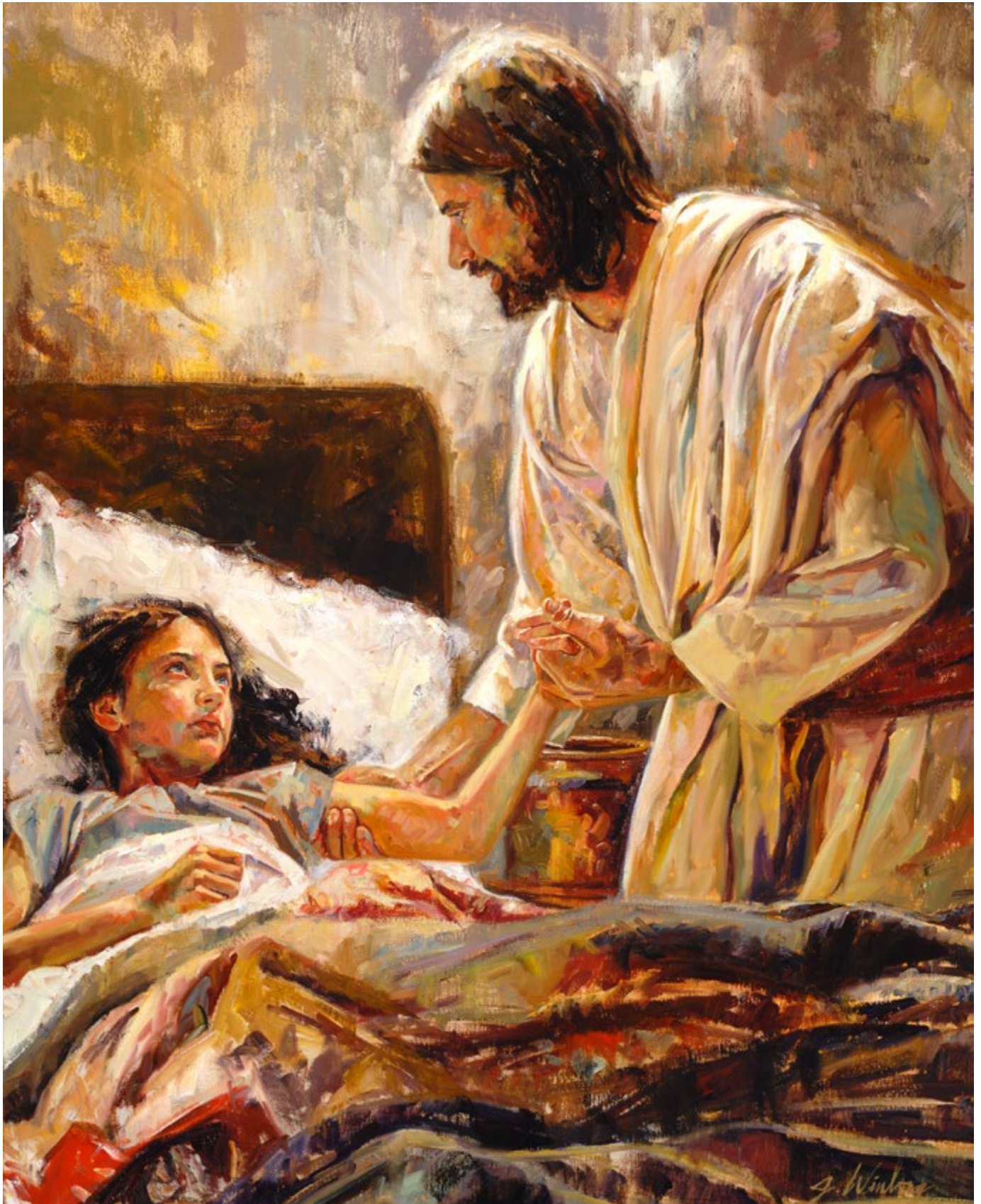
그 일이 있고 몸이 다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덴디는 여전히 방랑벽을 이기지 못하고 온 울타리를 탐색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문까지 단단히 묶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는 울타리 안에 덴디를 안전하게 가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깜박하고 대문을 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덴디는 빗장을 열고 다른 말까지 한 마리 데리고서 근처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두 마리 말이 간 곳은 창고로 쓰이던 낡은 집이었습니다. 호기심을 못 이긴 덴디는 그 집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안에는 곡식 자루가 있었습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그리고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자루 속의 곡식은 쥐를 잡으려고 독을 묻혀 둔 미끼였던 것입니다! 잠시 후 말들은 급작스러운 통증을 느꼈고 곧 두 마리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청소년 중에도 덴디와 비슷한 이가 많습니다. 이들은 불량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충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며, 호기심이 많고, 간절히 해 보고 싶은 일이 있을 뿐입니다. 청소년들도 억눌리는 것은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할 일을 주어 바쁘게 움직이게 하고 신중하고 올바르게 인도한다면 그들은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보여 줄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인도받지 못한 채 방황하게 둔다면 그들도 덴디처럼 의의 원칙을 어기는 일이 잦아질 것이며, 그러다 악의 덧과 재앙, 심지어 죽음에 이를지도 모를 일입니다. ■

Conference Report, Oct. 1968, 87에서 발췌.



다시 살아난 아이로의 딸, 제레미 원보그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누가복음 8:54)

그 밖에도 이번 호에는

청년 성인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논쟁을 일으키거나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굳건히 지키고
다른 이에게 진리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4쪽

청소년

50쪽



회개에 대해 **7** 가지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7** 가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은 회개와 용서를 통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두려움이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

특별한 느낌

침례받은 후에 뭔가 잘못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침례받았을
때의 그 특별한 느낌은 다시 느낄 수 없는 걸까요?



72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